

놓치지 마세요! 선상가공업 신고

선상가공업이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선상가공업에 해당하는 선박은 반드시
조업 전 **선상가공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 대표자, 선박의 명칭, 선적항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신고해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원양산업

제 1178 호
(2024년 2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비매물)

Contents



협회소식

- 2025년도 회장단 오찬 간담회 개최 / 4
- 협회, 인천해양박물관-원양노조와 MOU 체결 / 5
- 현장-연구(정책) 협업을 위한 업무협의회 추진 / 6
- 오션폴리텍 해기사 양성과정 교육생 추가 모집 공고 / 6
- 원양어업 활성화 방안 / 7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 9



이달의 요리

- 오징어순대 / 13



해외수산물정보

- 국제유가 동향
 - 2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699달러 / 14
- 참치어업 동향
 - 美 관세, 참치 통조림 무역에 미칠 영향은? / 15

- 日 협회, 냉동 참치류 어가 침체 우려 / 16
- 중서부태평양 12월 어획량 11만 7,252톤 / 17
- 세이셸 국적 선단 어획량 안정적 유지 / 18
- 日 냉동 눈다랑어 12월 가격, 전월 대비 소폭 하락 / 20
- 日 냉동 참치류 12월 수입 통계 발표 / 21
- 태국, '24년 1~3분기 황다랑어 원어 수입 감소 / 22
- 스페인 '24년 3분기 로인 수입, 5년간 최고치 / 23
- 태국, 오세아니아산 참치 원어 수입량 증대 / 24
- 베트남 참치 통조림 수출, 역대 기록 경신 / 24
- 태국-EFTA, 자유무역협정 체결 / 25
- 마셜제도 마주로항 전제 활동, 2024년에 급감 / 25
- 日, 선망선 3척 신조로 경쟁력 강화 목표 / 26
- 인도네시아, GDST 추적 표준 최초 도입 / 27
- 프랑스 선사, 선망선 3척 오만 선사에 매각 / 27
- 아프리카 참치 자원 위협 지속 / 28
- 2024년 12월 식물성 기름 가격 급등 / 29

■ 오징어어업 동향

- 아르헨, 2025년 일렉스 오징어 어획 좋은 시작 / 30
- 日 언론, '25년 초 해외 오징어 어업 동향 보도 / 31
- 오징어 트롤 신조선, 포클랜드제도 도착 / 31

원양산업
제1178호

발행
등록번호
2025년 2월 15일
1981년 8월 27일
서울라-9183호

발행처
특수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행인
편집
김영규

Contents

■ 명태어업 동향

- 러 명태 그룹, 2025년 어획량 200만 톤 예상 / 32
- 러 명태 A시즌 어획량 증가 예상돼 / 32
- 러 2024년 중국행 명태 수출 12% 감소 / 33
- 러, 1월 말 시점 오호츠크해 명태 21만 톤 어획 / 33
- 유럽 명태 A시즌 필렛 거래가, 전년도 대비 상승 / 34
- 러 대기업, 쿨릴 열도에 명태 공장 가동 / 34
- 러 2024년 명태 연육 생산, 역대 최대 수준 / 35
-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와의 수산 부문 합의 / 35
- 알래스카 명태 어선 노후화, 극복 방법은 없나? / 36
- 러, 어류 교환 거래 논의 중 / 37

■ 꽁치어업 동향

- 日 24년도 꽁치 어업, 약 3만 9,000톤으로 종료 / 38

■ 각국 수산 동향

- 2024년 세계 해수운, 역대 최고치 갱신 / 39
- 우크라이나, 2024년 남극 어획량 기록 경신 / 39
- 美 장관 지명자, 러 수산물 강경 대응 의사 밝혀 / 40
- 포르투갈 정부, 외국인 어선원 증대 추진 / 40
- 러, 2억 8천만 달러 선박 보조금 계획 합의 / 41
- 러, 생선을 식단에 포함하고자 노력 / 42
- 사업 통합으로 발전하는 러 생선 가공 업계 / 43
- 러시아 새우 수요, 눈에 띄게 증가 / 43
- 日, 어민이 과학 자료수집을 도와 / 44
- 러 남극 크릴 어획량 약 8만 톤 / 44
- 베트남, 글로벌 생선 수출 입지 강화 / 45



쉬어가는 난

- 바다 - 최동권 /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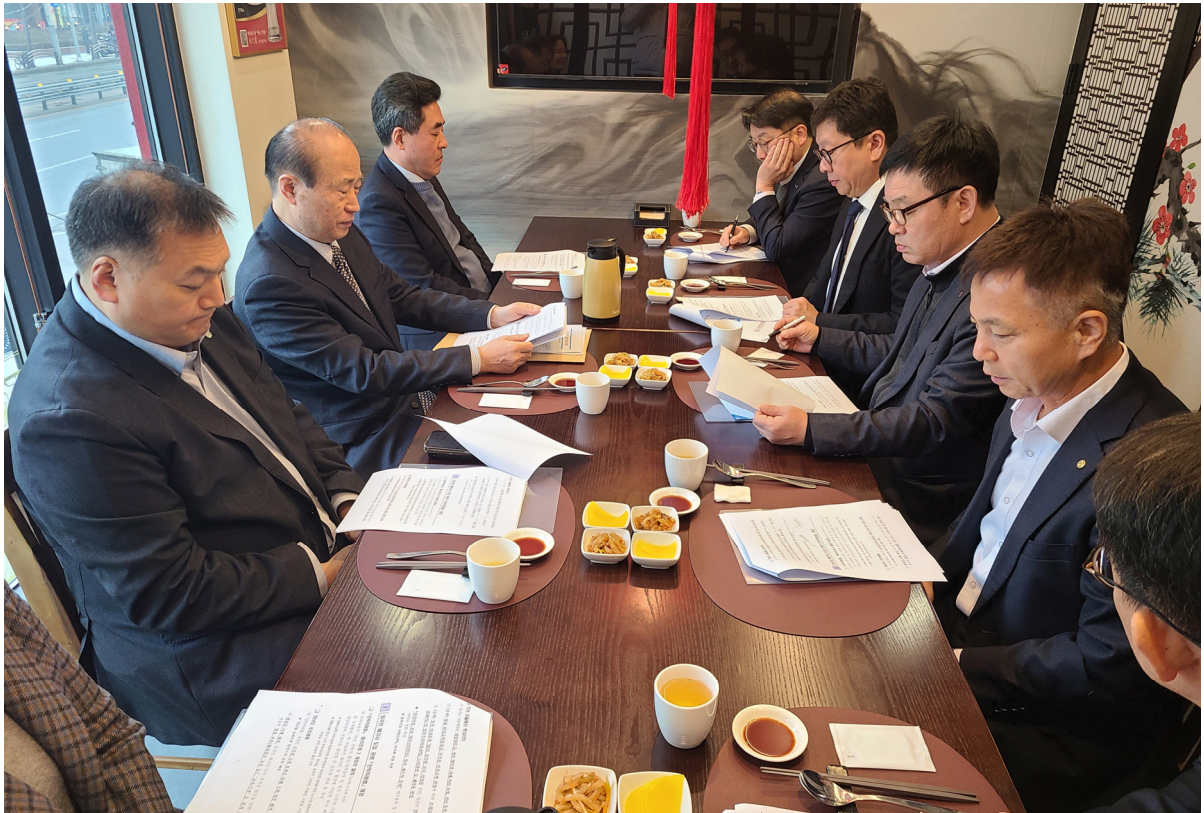


국내 수산 정보

- 1월 오징어 국내 동향 / 47
- 1월 명태 국내 동향 / 49
- 2024년 수산식품 수출 실적 30억 불 돌파 / 51
- 2024년 우리나라 원양어선 어획량 17% 증가 / 52
- 정부, 수산업 전문가 훈련연수 추진 / 52
- 2025 수산 경제 전망 / 53
- 2025 수산업 전망과 과제 / 54
- 아프리카의 수산 협력 잠재력 높아 / 55
- 우리나라 원양어업 어종 자원 현황 / 56
- 이빨고기 생산 및 교역 현황 / 56
- 참치 무역 현황 / 57
- 한·중어업협정 / 57
- 한·소어업협정 / 58
- 한·일어업협정 / 59
- 미국의 명태산업 현황 / 59
- 원양어업 및 어장 현황 / 60
-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 / 61
- 원양어업 안전관리 체계 강화 / 62
- 주요 수산물 수입량 감소 / 63

2025년도 회장단 오찬 간담회 개최

협회 정기총회 및 이사회 안건 논의



우리 협회 회장단 간담회가 지난 2월 12일 협회 인근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장단 간담회에는 우리 협회 김영규 협회장과 양 본부장을 비롯하여, 동원산업 박상진 대표, 동원수산 왕태현 사장, 사조산업 김치곤 사장, 신라교역 김호운 사장, 정일산업 전선중 부사장, 참손푸드 윤재현 사장<이상 회사명 가나다순>이 참석하였다.

이날 협회는 회장단에 2025년도 협회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 편성 방침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아울러 협회 및 회장단은 2025년도 이사회·정기총회 일정 및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상정 예정된 안건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2025년도 협회 정기총회와 이사회는 2월 2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협회, 인천해양박물관-원양노조와 MOU 체결

‘원양산업 역사와 국가경제발전 기여를 알리는 계기’ 기대



우리 협회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관장 우동식),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위원장 박진동)과 함께 2월 7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이번 양해각서를 기점으로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원양산업 유물과 원양선원의 생활사 등 자료 수집을 협력받고, 전시·교육 등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역사와 국가 경제발전 기여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해양문화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원양산업의 역사와 가치를 보존하고, 해양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목적으로 △원양산업과 선원생활사 등에 관한 유물·자료 기증 및 수집 협력,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교육·행사 등 프로그램 지원 협력, △기관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협력, △기타 공동사업 등의 교류 및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우동식 관장은 “1971년에는 원양산업 수출액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5%를 담당할 만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실이 있지만, 잘 안 알려지고 있어 안타까웠다.”라고 하며, “이번 MOU를 계기로 원양산업이 역사와 국가경제에 기여한 부분을 국민들께 새롭고 흥미롭게 잘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규 협회장은 “1957년 지남호 이후 우리나라 원양산업 역군들이 1970년대 말까지 벌어들인 외화는 약 20억 달러(당시 화폐 기준)로 6.25 전쟁 이후 경제 재건과 산업화의 밑거름이 되었고, 현재까지 20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된다”라며 “이번 MOU가 우리 원양산업 70여 년의 역사 및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대한 원양산업의 기여와 공헌이 보다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연구(정책) 협업을 위한 업무협의회 추진

과학 관련 현안 논의 및 업계 건의 수렴



우리 협회는 원양어업 과학 관련 현안 사안을 논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2025년 1월 16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원양어업 현장-연구(정책) 협업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립수산물과학원 김희용 원양자원과장 외 8명, 해수부 고경만 원양산업과장 외 원

양산업과 2명, 국제협력총괄과 나일강 주무관 외 1명, 조업감시센터 장근호 주무관, 해외협력센터 김수민 전문관 외 1명이 참석하였다.

원양업계에서는 동원산업 이상범 상무 외 2명, 사조산업 박진석 차장, 신라교역 강민구 차장 외 1명, 에스앤비인터내셔널 하양천 본부장, 정일산업 박황희 부장 외 1명, 티앤에스산업 조양식 이사 외 1명, 흥진실업 이해준 부장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해외협력본부장, 해외협력1·2부가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업상황 보고 준수, 입출항 보고 및 전재 보고 관련 요구 등의 당부 사항이 전달되었다. 아울러 참치어업 및 저층어업과 관련된 각 지역수산물관리기구별 주요 이슈 및 조치사항을 논의하였다.

오션폴리텍 해기사 양성과정 교육생 추가 모집 공고

어선 5급 해기사 양성과정(기관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오션폴리텍 어선 5급 해기사 양성과정(기관과)의 추가 모집을 발표하였다.

모집기간은 2025년 2월 17일 오전 11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이며, 모집인원은 20명이다.

전형 과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이론 3.5개월, 실습 1.5개월 과정에 선사실습 1개월이 추가된다. 교육비·교재비·실습비가 국비로 지급되고 입교 1개월 이후부터 훈련수당

20만원과 장학금이 지급된다.

수료생에게는 해기사 면허(5급) 취득에 필요한 승선경력이 인정되어, 해기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선사실습 1개월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접수처: <https://kimft.recruitlab.co.kr/app/recruitment-announcement/list>

※ 문의처: 051-620-5843 또는 5841.



원양어업 활성화 방안

위기의 수산업, 원양어업이 희망이다.

식량은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구상의 가장 큰 공간이며 전체 산소의 70%를 생성하는 바다에서 원양어업은 해양자원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 연근해에 없거나 우리 바다에서 부족한 식량자원을 해외에서 확보하고 있다.

원양어업은 기후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식량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 식량안보 산업으로, 자원 확보, 경제적 가치와 함께 국방과 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원양어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 해기 인력 부족 문제 해결 필요

현재 원양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것은 법정 해기 인력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우리 원양업계는 해기사의 부족으로 원양어선의 출항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조업 중 환자 발생 등으로 조업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중도 하선하는 해기사가 있을 시 승무 기준 충족을 위하여 동일 해기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거나, 보충 인력을 구할 수 없어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양 업계 및 원양협회는 원양어선의 해기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오션폴리텍 해기사 양성 과정과 수산계 고교 종합승선 실습과정을 통하여 국내 해기사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2023년에 어선 분야 오션폴리텍 5급 교육과정으로 수료생 31명만 배출되었고, 이 중 4명만 원양어선에 승선하였다. 또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와 연계되어 배출된 해기사들은 군복무를 완

료 후 3년 이내 모두 하선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 군복무 기간 지속 단축으로 병역특례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하선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졸업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반 병사의 월급이 상향될수록 원양어선 승선을 통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이점 및 매력도는 하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교육기관에서 배출한 전문인력들이 국내 어선에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와 혜택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병행하여 부족한 해기인력을 외국인으로 보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야 하겠다.

2. 원양어선 노후화 문제 해결 필요

2023년 기준 현재 원양어선의 허가 선박은 모두 201척이다. 이 중 선박의 나이(선령)가 31년 이상 된 노후선은 160척으로 전체의 79.6%를 차지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위하여 '원양어선 안전 펀드'를 조성하여 선령이 30년 이상 된 노후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원양선사는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원양선사의 대부분은 중소 영세 기업으로 선박 건조 자금 마련이 어렵다. 또한 자금 마련을 위한 은행 대출 시, 선박은 건물과 같은 자산으로 취급되지 않고 차량과 같은 자산으로 간주된다. 이에 30년이 초과한 선박은 시중은행에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수익성이 열악한 업종을 보유한 선사의 경우



중도 상환액을 납부할 수 없어 대부분 경영주 입장에서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업계는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후 선박을 대체하고 싶어도 동 사업에 참가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와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선박 건조 비용 지속 상승 등의 문제로 신조 대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원양어업 업종이 다양함에도 2019년부터 지금까지 신조 대체가 진행된 선박은 오징어 채낚기 5척, 오징어 트롤선박 2척에 불과하고, 추가로 사업 진행 중인 선박도 참치 선망 1척, 이빨고기 저연승 1척에 그친다는 점을 봐도 업계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 척도 신조 대체가 이뤄지지 않은 업종도 동 사업을 통하여 선박을 대체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리, 상환기간 등 사업 진행 조건을 완화하고, 은행 대출이 가능한 방법을 마련하여 동 사업이 다양한 업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선박 신조 대체와 함께, 신조 선박 선정 시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른 시일 대체 시행이 어려운 선박은, 대안으로 중고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고선 도입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선박 수리 지원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도 마련하여, 어렵게 확보한 해외어장을 유지하고 우리 원양어선이 국제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선박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가 필수 원양어선제도를 도입하고, 해당하는 원양어선에 심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3. 지속 가능한 해외어장 확보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지난 56년간 지구의 표층 수온은 0.7도 상승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변 수역의 상승치는 평균 1.44도로, 지구의 평균 상승치보다 2배 이상이나 된다. 이에 따라 국민생선인 명태

는 우리나라에서는 연중 어획이 불가능한 어종이 되었다. 오징어도 매년 20만 톤 정도 어획되었으나 2023년에는 2만 3천톤만이 어획되었다.

그러므로, 명태, 대구, 오징어, 꽁치 등의 어종은 원양어업을 통하여 공급되지 않을 시 수입산 제품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어려워지게 되었다. 따라서, 해외수산 자원 확보가 국가 식량안보와 물가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고려하여 해외어장확보를 위한 정책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원보유국가별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비하여야 하고, 자원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상생하고 실질적인 수산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입어 국가별 맞춤형 지원과 지속적 관계 구축을 위한 복합적 협상 전략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수산물기구로부터 다자간 협상 시 조업 규제 강화, 해상 전재 규제, 옵서버 커버리지 상향, 전자 모니터링 확대, 해상 검색 확대 등 수산 자원 관리 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제수산 기구별 체계적 협상 전략, 과학·재정 기여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현재 우리나라 원양업계는 조업 여건 및 채산성 측면에서 많은 난관을 맞이하고 있다.

해외어장에 기반을 두고 있는 원양산업은 생산·운반·유통 단계를 거쳐 현금화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 회전 측면에서 취약한 구조이다. 여기에 고유가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 어가 하락, 환율 변동 등의 요인은 어획물 판매를 통한 현금 유동성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척을 소유한 대부분의 영세 원양 업체와 수출 위주의 중견 업체 모두 경영악화의 심화가 우려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다. 원양업계의 금리인하와 신용·담보 대출 확대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금융 및 세제 혜택 지원이 요구된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

가. 건설 중단 조치로 경기 침체

- 세네갈의 새 정부 출범 이후 건설 중단 조치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과 여러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제 공하였다.
- 지난 11월 상품 수입이 10월 대비 17.5% 감소하였으며, 특히 기계 장비 차량 부품, 밀과 보리 등의 수입이 크게 줄었다.
- 부동산은 11월 한 달 동안 66% 급감하였고, 시멘트 산업 성장률은 9.0% 증가 대비 3.1% 증가를 기록하며 지난해 대비 큰 둔화 현상이 나타났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초과	1,600
	3.4~10kg	1,500
	1.8~3.4kg	1,400
	1.5~1.8kg	1,250
	1.5kg 미만	1,050
눈다랑어	10kg 초과	1,250
	3.4~10kg	1,250
	1.8~3.4kg	1,250
	1.5~1.8kg	1,100
	1.5kg 미만	900
가다랑어	3.4kg 초과	1,450
	1.8~3.4kg	1,400
	1.5~1.8kg	1,250
	1.5kg 미만	1,050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유로/톤)	조사일
다카르항	MGO	682	'25.1.24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

가. 뉴질랜드 간 무역 최고치 달성

- 피지와 뉴질랜드 간의 무역은 2024년 9월까지 1년 동안 19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뉴질랜드 방문객 수도 지속 증가하여 2023년 피지를 방문한 뉴질랜드인은 22만 6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나. 피지, 버려진 선박 제거 추진

- 2023년 기준 수바항구에는 44척의 버려진 선박이 있었으며, 이는 환경적 항해적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에 수산청과 해양청이 선박 제거, 재판매, 해체 작업을 지속 추진하여 현재 22척으로 감소하였다.

다. 일본, 피지에 기반 시설 지원

- 일본은 1990년 이래 피지의 교육, 물 공급, 건강, 교통 등 광범위한 분야에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400개의 프로젝트에 일본이 7,300만 달러 상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학교 기반 시설 확장 및 개선을 위해 18만 7천 달러를 지원하였다.



라.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날개다랑어	10kg 상	2,500	로안가공용(PAFCO)

마.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TOTAL	MGO	1,354	'25.2.10

박상천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관



박상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정부, 소금 자급자족 준비

- 인도네시아 정부가 소금 자급자족을 위하여 2025년에는 산업용을 제외한 소비자용 소금을 수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정부는 부족한 소금 생산량을 증가하기 위하여 1,445헥타르의 염전개발지역을 인드라마유에 선정하고, 이 지역에 기반 시설 개발, 어민교육, 금융 접근성 등을 지원기로 하였다.

나. 해안 접근성 개선을 위한 부두 건설

- 정부는 경제, 사회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하고 해안지 역사회와 작은 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유식 부두 건설을 지속하고 있다.
- 2015년부터 시작된 이사업은 이미 32개 지역에 부유식 부두를 건설하여 해상교통에 대한 접근성 개선, 생필품 수급 가속화, 지역 관광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지역어민의 활동과 수산물 유통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PERTAMINA	MDF	990	'25.2.7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전월과 비슷한 어획률을 기록하였다.

가. 어장 동향

- 아메리칸 사모아 및 연근해 쿡 아일랜드 어장에서 날개다랑어를 평균 0.5~0.8톤, 황다랑어와 눈다랑어를 평균 0.2~0.5톤을 어획하여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라운드	1,590
눈다랑어	라운드	1,390
가다랑어	라운드	1,390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gal)	조사일
클리퍼오일	디젤	2.92	'25.2.7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NGO, 생물다양성 저해 주장

- NGO는 뉴질랜드 정부의 하우라 킴만 해양 보호 약화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 뉴질랜드 정부는 소수 어민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두 구역의 제한적 상업어업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지난해 보호 구역에서 잡은 물고기의 가치는 1만 3,852달러로 경제적 근거가 빈약하며 이 결정으로 생물 다양성과 수년간의 보존 노력이 저해되었다고 NGO는 주장하였다.

나. 오징어 어획 저조

○ 통상 1월부터 시작하는 오징어 조업은 2월이면 본격화되나, 2025년에는 지금까지 오징어가 거의 어획되지 않아 수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다.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검정통삼치	2L	2,300
	L	2,300
	M	2,300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터니든	MGO	961	'25.1.7

이동춘 모리셔스 명예해양수산물관



이동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전자 보고 시스템 도입

○ 모리셔스는 어업용 전자 보고 시스템(ERS)을 도입하여 조업 어획물을 전자 형태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EU 대표단이 알비옹 어업 센터에 현장 방문이 이루어졌다.

○ EU는 모리셔스의 블루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서 2013년 해양 로드맵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는 책임있는 어업과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을 위한 지원을 재확인하였다.

나.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ENGEN	MGO	880	'25.2.10

이상우 아르헨티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상우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정박 선박 간 이동 시 주의 필요

○ 지난 1월 4일 마르 델 플라타 항구에서 33세 남성이 정박해 있던 채낚기 선박 2척 사이를 이동하다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구조되었다.

○ 이와 같은 사고는 자주 발생하고 대부분 구조가 어려워 선원의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채낚기 선박이 정박하는 곳은 수심이 깊고 추락 시 자력으로 올라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발견과 구조가 늦어질 경우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 지금까지 한국인 선원도 다수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구조된 예는 없어, 앞으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나.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L)	조사일
Epsol YPF	MGO	1,210	'25.1.9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

가. NGO, 어업 투명성 강조

- 어업 투명성 연합(CFT)은 가나의 제한된 어업 정보 접근을 비판해 왔다. 연합에 따르면 이러한 투명성 부족으로 인하여 불법 어업이 촉진되어 300만 명의 소규모 어업인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수산자원이 상당히 고갈되고 있다고 하였다.
- 환경 정의 재단(EJF)의 대표에 따르면 가나는 세계에서 어족 자원이 가장 풍부한 어장이나 현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대량의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고 하였다.
- 또한 그는 투명성은 해안 지역 사회와 어업 종사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으로, 투명성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해안 경제 확보, 선원 안전 강화, 효과적인 정부 관리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초과	2,250
	10kg 이하	1,800
가다랑어	3.4kg 초과	1,500
	1.8~3.4kg	1,450
	1.5~1.8kg	1,300
	1.5kg 미만	1,150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GOIL	MGO	880	'25.1.31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

가. 참치 공장 정상 운영 노력

- PNG 내 참치 가공공장은 6개가 있으나 부두 기반 시설 문제, 사업 타당성 부족, 방만 경영 등으로 4개만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하나는 50% 이하의 가동률을 나머지 하나는 폐쇄되었다.
- 이에 PNG 정부는 가공공장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외국 선사에 적극 접근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PNG 정부는 자국민 고용 창출과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TWL Logistics	디젤	831	'25.2.7

〈 게재 순서: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



오징어순대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통오징어 2마리, 다진돼지고기 1컵, 당근 1/4개, 부추 1줌, 숙주 1줌, 두부 1/4모, 전분 1/2컵, 계란 1개
- 속양념: 간장 1/2큰술, 설탕 1/2큰술, 마늘 1/2큰술, 다진대파 1큰술, 굴소스 1작은술, 소금, 후추, 참기름 약간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오징어 내장을 제거 후 다리랑 몸통을 분리한다.
- ② 오징어다리, 당근, 부추, 양파를 다진다.
- ③ 두부는 으갠 후 물기를 빼서 ②의 소에 합친다.
- ④ ③의 재료와 다진 돼지고기에 양념을 섞은 후 계란물 1/2개, 전분가루를 넣어 치댄다.
- ⑤ ①의 오징어 몸통에 ④의 재료를 넣고 이쑤시개로 고정 후 12분간 찐다.
- ⑥ ⑤의 오징어순대를 한 김 식힌 후 한입 크기로 잘라 그릇에 담아 완성한다.



2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699달러

2월 13일 기준 680달러

2월 13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77.68달러, WTI 가격은 71.29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75.02달러를 기록하였다.

2월 13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가격은 톤당 680달러로 2월 13일(755달러) 가격 대비 약 10% 하락하였다.

2월 평균(2.3~2.13) 가격은 699달러로 전월 평균(1.1~11.29)인 721달러 대비 약 3% 하락하였다. 전년 2월 평균보다 12% 하락하였고, 전전년 11월과 비교하면 28%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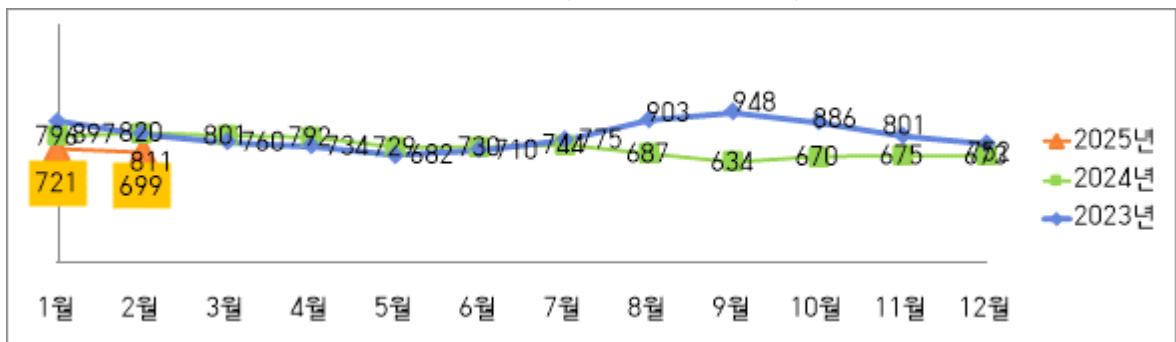
2024년 평균(1.2~1.31) 가격은 731달러로 전년(1.1~12.29) 평균 대비 12% 하락하였고, 전전년 평균 대비 22% 하락하였다.

미국 정부는 이란의 중국 및 친이란 무장단체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또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의 석유 수출을 (현재의 일일 150만~160만 배럴에서) 트럼프 1기 수준인 일일 10만 배럴 수준까지 감축시킬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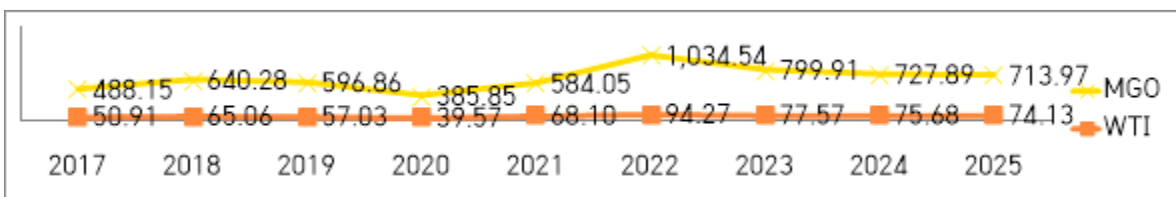
그러나 밴스 미국 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독일에서 만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고 다시 하락하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석유 시장 보고서에서, “미국 제재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된다면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분석하였다.

〈 연도별 월별 싱가포르 MGO 평균 가격 〉



〈 연도별 MGO, WTI 평균 가격 〉





美 관세, 참치 통조림 무역에 미칠 영향은?

중국, 멕시코 미국행 참치 수출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 관세 부과는 국제 언론의 화제였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이미 부과되었고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현재 유예된 상태이다. 이는 두 나라 간의 참치 무역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행정 명령의 이름은 '북부 국경을 가로지르는 불법 약물의 흐름을 해결하기 위한 의무 부과'이다. 2월 1일 백악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불법 이민을 중단하고 독성 펜타닐과 기타 약물의 미국 유입을 막겠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국 제품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가 발효된 가운데, 워싱턴은 월요일에 무역 동반자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를 3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Atuna는 작년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가다랑어 통조림에 대하여 특혜 지위나 감면 관세가 있는 국가가 아닌 한 12.5~35%(기름 포함 제품일 경우)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2021년 임기 관세 부과는 중국 참치 수출, 특히 자숙 로인의 미국 시장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2023년에는 중국산 로인의 수입 내역이 전혀 없었고, 약 384톤의 통조림만을 수입하는 데 그쳤다. 참치 유사종 수입만이 5,182톤으로 유지되었다. 2024년 1분기~3분기에 미국은 약 220톤의 중국산 상온보관 날개다랑어 제품을 수입하고, 같은 기간 동안 257톤의 날개다랑어 로인과 2,572톤의 참치 유사종 통조림을 수입하

였다.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멕시코의 참치 무역은 캐나다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에 멕시코는 미국으로 참치 통조림 1만 5,455톤을 수출하였다. 2024년 1~9월 동안의 수출량은 1만 1,800톤이다.

캐나다는 소량의 날개다랑어 통조림과 필렛을 미국에 수출한다. 2023년에 캐나다는 124.2톤의 날개다랑어 상온 보관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였고, 2024년 1~3분기에는 16.05톤, 냉동 필렛은 223.6톤을 수출하였다.

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영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받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는 BBC에 EU와 영국이 "선을 넘었다"라고 말하였고, EU에 "조만간"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Eurostat 데이터에 따르면 EU는 2023년 미국에 참치 통조림 1,722톤, 2024년 1~9월 동안 1,410톤을 수출하였다. Atuna가 유럽 위원회 무역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에 따르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상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하워드 루트닉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 어업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의 어업자는 우리의 위대한 자산 중 하나이다.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한 루트닉은 중국과 러시아 수산물에 대한 강경한 태도 또한 천명하였다.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결국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2월 5일자



日 협회, 냉동 참치류 어가 침체 우려

유류비·인건비 등 비용 상승 이중고

일본 가다랑어·참치어협(이하, 어협)의 카가와 켄지 조합장은 1월 15일 기자회견에서 냉동 참치류의 어가 침체에 강한 우려를 표하였다. 유류비나 인건비 등 조업 비용의 상승이 겹치면서 원양 연승선의 경영은 해외 선단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합장은 지적하였다. 그러나 조합장은 일본 국내 수요의 확대에 더하여 유럽 등지의 시장 개척에도 의욕을 표하였다.

2024년 어가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던 2022년에 비교하면, 남방참다랑어는 40% 하락, 참다랑어는 20% 하락, 눈다랑어는 30% 하락하였다. 카가와 조합장은 참다랑어를 중심으로 공급이 일본 시장에 집중되면서 수급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냉동고의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냉동 제품의 강점인 재고와 출하량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조업 비용 상승도 계속되고 있다. 유가가 저렴하던 시기에는 100만 엔 이하였던 참치 어선의 1일당 조업 비용은 현재 평균 120만 엔에 달한다. 조업 비용의 1/3을 차지하는 유류비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미끼 비용 등 전반적인 경비 부담이 증가하여, 어선의 태반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어협 측에서는 2024년 상사와 어시장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 등에 비용 상승을 반영하여 매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일부 어업자로부터 효과를 실감하였다는 의견도 있었기에, 2025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어가 침체의 큰 요인의 하나로서 초저온 냉동고 공간 부족이 지목되었다. 작년 전기~중기에 운반선 여

러 척이 불가피하게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에 처하였고, 심지어 7개월간 대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냉동고 공간 부족으로 일본 선단뿐 아니라 대만과 한국 선단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카가와 조합장은 스티로폼 포장 수입 양식품과 냉동 가공품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말을 소개한 뒤, “수요에 따른 수입과 가공, 시장 출하로 냉장고에 되돌리는 일이 없도록 요청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어선의 수익이 어려워지면서, 대만은 이미 60척의 감척을 결정하였다. “횡감용 참치의 시장은 일본에 집중되어 있어, 지금 이대로는 새로운 가격 하락으로 공멸하게 된다”라고 카가와 조합장은 우려하였다. 어협 측은 책임있는참치어업추진기구(OPRT)가 3월에 개최하는 세미나에서, 일본 시장의 상황이나 일본 외 시장에 판매할 필요성을 호소할 계획이다.

어협 측은 소비 확대를 위하여 동 어협 소속 선단의 주력 어종인 남방참다랑어와 대서양 참다랑어의 소비 확대에 의욕을 표하였다. 조합장은 남방참다랑어는 특히 인지도가 하락하여 소비자가 인식하고 먹는 빈도가 감소하였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어협은 시장 대책과 부가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해외 수출을 시작하였다. 참치 어선 기지인 스페인 라스팔마스에서 눈다랑어와 황다랑어를 현지 상사에 적당 수 십 톤 규모로 판매하고 있다. 올해 봄 라스팔마스에 초저온 냉동고가 설치될 예정으로, EU 수출 확대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1월 20일자



중서부태평양 12월 어획량 11만 7,252톤

12월 전재량 10% 감소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단은 2024년 12월에 낮은 일일 어획량을 기록하였고, 전체 어획량 또한 감소하였다. 데이터에 따르면 12월의 어획량은 2024년의 월간 어획량 중 최저치이지만, 연간 평균치에는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2024년 12월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과 공해에서의 선망 어획량은 11만 7,252톤으로, 전월 어획량 대비 약 25% 감소하였다. 일일 평균 어획량은 31톤으로, 전월 대비 25% 감소하였다.

12월 파푸아뉴기니 EEZ와 나우루 EEZ에서의 일일 어획량은 36톤으로, 각각 전월 대비 21%, 12% 감소하였다. 다만 마셜제도(28톤), 투발루(26톤), 마이크로네시아(25톤), 토켈라우(16톤)에서의 일일 어획량은 전월 대비 증가하였다. 선망선단의 상기 수역에서의 조업 활동은 모두 증가하였다. 공해에서의 일일 어획량은 27톤으로, 전월 대비 45% 가까이 하락하였다. 키리바시에서는 26톤, 솔로몬제도에서는 23톤의 일일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가다랑어의 일일 어획량은 23톤으로 전월 대비 28% 감소하면서 2024년도 월간 일일 어획량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소형 황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44% 감소한 약 2톤에 그쳤다. 대형 눈다랑어의 일일 어획량은 9% 증가하였으나, 소형 눈다랑어의 경

우 28% 감소하였다.

한편, 12월 다랑어류 전재량은 PNA와 공해에서의 어획량 감소 영향으로 인하여 전월 대비 10% 감소하였다. 전체의 약 절반은 PNG에서 전제되었다.

12월 전재량은 6만 9,200톤으로, 11월 전재량(약 7만 5,000톤) 대비 감소하였다. 전제 건수는 107건으로, 전월의 115건 대비 7% 감소하였다.

PNG 수역에서의 많은 어획량으로 인하여 PNG 주요 항구인 마당, 라바울, 라에에서의 전제량 또한 전체의 약 44%나 되는 3만 448톤을 기록하였다. 11월 PNG에서의 전제량 비중은 전체 전제량의 26%였다.

마이크로네시아 수역에서의 전제량은 약 1만 3,000톤이다. 마셜제도에서의 전제량은 전체의 16%인 약 1만 1,000톤이었다. 11월 전제량과 비교하면 마이크로네시아에서는 2,000톤 증가하였으나, 마셜제도에서는 약 6,000톤 감소하였다.

키리바시와 솔로몬제도에서의 전제량은 각각 7,612톤, 9,688톤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11월과 비교하면 현저히 감소한 수준이다.

나우루와 투발루에서는 전제 보고가 없었다.

* 출처: Atuna, 2025년 1월 22일자, 23일자



세이셸 국적 선단 어획량 안정적 유지

원양 연승선단 척수는 감소

세이셸 국적 선단의 다랑어류 어획량은 지난 3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선망선의 척수는 2019~2023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원양 연승선단의 척수는 수년간 감소 추세였다. 신선 다랑어류를 어획하는 소형 연승선단의 척수는 증가 추세이다.

세이셸은 인도양다랑어위원회(이하, IOTC) 과학 위원회에 세이셸 국적 선단의 척수와 어획량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세이셸은 해외 선단과 어업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세부 정보는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세이셸 국적으로 등록된 선망선의 척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3척으로 유지되었다. 산업 연승선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현지에 기반을 둔 준산업 연승선의 수는 수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세이셸 국적 선망선단의 2023년 어획량은 11만 9,093톤으로, 2022년도 대비 209톤 증가하였다. 어획량의 다수는 가다랑어이며, 황다랑어와 눈다랑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날개다랑어는 수년간 8~29톤의 극소량만이 어획되었다.

역사적으로 가다랑어는 세이셸 선망선단의 서부 인도양 어획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2023년에도 이어졌다. 황다랑어 어획량은 2023년에 지난 5년 중에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인도양에서 황다랑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의 하나로 세이셸에 할당된 황다랑어 쿼터가 감소하였다는 점이 작용했을 수 있다. 눈다랑어 어획량은 증가 추세이며, 2019~2023년 동안 가장 많이 어획된 해는 2021년이다.

Table 1a. Number of Seychelles registered vessels for the period 2019 – 2023

Year	Purse Seiners	Supply Vessels	Industrial Longliners	Semi-industrial Longliners
2019	13	6	57	36
2020	13	5	62	45
2021	13	4	64	41
2022	13	4	58	56
2023	13	3	34	66

(2019~2023년 세이셸 국적선 업종별 등록 내역)

Purse Seiner Catches (In M/T)					
Species	2019	2020	2021	2022	2023
Skipjack	72,917	75,486	81,390	78,250	79,792
Yellowfin	33,006	30,502	29,407	30,978	28,329
Bigeye	6,538	5,893	11,230	10,074	10,972
Total Production	112,461	111,881	122,027	119,302	119,093

Source: Seychelles Fisheries Authority

Powered by Atuna Analyst

(2019~2023년 세이셸 선망선 어종별 어획량)



대부분의 조업은 세이셸 EEZ 외에 탄자니아, 코모로,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 EEZ에 근접한 곳과 공해에서 이루어졌다.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상당수의 세이셸 국적 선박선은 유럽에서 관리하거나 유럽 기업과의 합작선이다. 상당수의 냉동 원어는 스페인 가공업체로 운송된다.

세이셸의 산업 연승선단의 수는 수년에 걸쳐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34척에 그쳤다. 연승선단의 수는 2021년에 64척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2023년 조업선 중 총톤수 101~500톤의 선박은 27척이었고, 500~1,000톤의 대형선은 7척이었다. 보고서는 척수 감소 원인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연승선단의 주요 어획 어종은 황다랑어와 눈다랑어였다. 이들은 또한 황새치, 청새치, 상어, 소량의 날개다랑어 등을 어획하였다. 연승선단 어획량은 지난 5년간 급격히 감소하였다. 2023년 다랑어류 어획량은 6,853톤으로, 2022년 대비 77톤 증가하는 데 그쳤다. 황다랑어 어획량은 증가하였으나 눈다랑어 어획량은 감소하였다. 어업 노력은 소말리아, 케냐, 마

다가스카르, 남아공 EEZ와 공해에 집중되었다.

보고서는 2023년에 새로운 행정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세이셸 선박이 주로 연간 규정준수 검사를 위하여 1년에 최소 두 번 포트빅토리아에 정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준산업 연승선단은 용적량 50톤 미만의 소형선이 기준으로, 대부분 세이셸 영해에서 조업하며 공해에서 조업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

2023년 준산업 연승선의 수는 66척으로, 2019년 이후 최대치이다. 2023년 준산업 연승선단 어획량 또한 2,410톤으로 5년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9년에는 37척의 준산업 연승선만이 IOTC 명단에 등재되었다.

이들의 어획량은 2019년에 1,626톤으로 준수하였으나 2020년에 팬데믹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국경 폐쇄로 인하여 수출 기회가 감소하였고, 일부 선박은 자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저서어종을 목표로 삼았다. 이후 준산업 연승어업에서의 어획량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1월 30일자

Semi-Industrial longliners catches (In M/T)					
Species	2019	2020	2021	2022	2023
Yellowfin	1,507	1,277	1,572	1,920	2,376
Bigeye	119	55	50	20	34
Total Production	1,626	1,332	1,622	1,940	2,410

Source: Seychelles Fisheries Authority

Powered by Atuna Analyst

(2019~2023년 세이셸 준산업 연승선단 어종별 어획량)

Longliner catches (In M/T)					
Species	2019	2020	2021	2022	2023
Yellowfin	8,978	7,775	3,064	2,894	3,320
Bigeye	5,265	7,391	5,826	3,882	3,533
Total Production	14,243	15,166	8,890	6,776	6,853

Source: Seychelles Fisheries Authority

Powered by Atuna Analyst

(2019~2023년 세이셸 연승선단 어종별 어획량)



日 냉동 눈다랑어 12월 가격, 전월 대비 소폭 하락 전월 수준 거의 유지

일본 재무성 무역 통계에 따르면, 다랑어류의 12월 수입 실적은 신선·냉장 제품 수입량 415톤(전년도 동월 대비 12% 증가), 수입액 7억 6,800만 엔(9% 증가), 냉동 제품 수입량 1만 2,776톤(16% 감소), 수입액 144억 5,200만 엔(15% 감소), 가공품 수입량 3,306톤(3% 증가), 수입액 28억 7,300만 엔(3% 증가)이었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 제품의 12월 수입 단가는 kg당 평균 688엔(전년도 동월 대비 10% 하락)으로, 11월 가격인 697엔 대비 하락하였다. 수량이 가장 많은(1,502톤) 대만산의 가격은 685엔(10% 하락)으로 8월 가격인 646엔 대비 상승하였으나 11월 가격인 690엔에는 못 미치며 횡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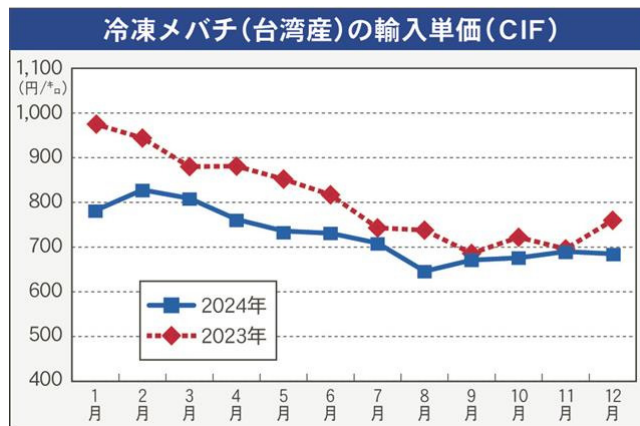
초저온 냉동고의 공간을 기다리고 있는 양상 대기선은 연말 수요 확대로 상황 개선이 기대되었으나, 관계자에 따르면 냉동고에 여유가 생길 정도의 소비 확대

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앞으로 입고량이 늘어나는 지중해 연안산 양식 참다랑어 냉동 필렛의 공간 확보도 있어 만고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세의 지표가 되는 냉동 눈다랑어 인도양 대만산의 일선매입(一船買い, 특정 선박의 선주와 직접 협상하여 해당 선박의 어획물을 일정한 가격에 매입하는 방식) 가격은 40kg 이상 대형 기준으로 kg당 800엔으로 상향되었으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가격 조정 시기의 적절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식 참다랑어 냉동 필렛의 수입량은 2,045톤(25% 감소)이다. 단가는 kg당 2,595엔(7% 상승)이나, 최종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30%까지 상승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2월 6일자



(2023~2024년 대만산 냉동 눈다랑어 일본 수입단가 그래프)



日 냉동 참치류 12월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눈다랑어 206톤 수입

〈 2024년 12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

(단위: 톤)

어종	국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날개 다랑 어	한국	25	6	34	4	77	23	214	179	74	84	44	-
	대만	330	12	490	458	637	148	711	426	865	2,664	1,474	1,515
	VU*	-	-	121	740	333	104	23	4	-	598	621	72
	기타	109	299	572	235	59	349	367	225	377	176	366	185
	소계	464	317	1,218	1,437	1,106	623	1,315	834	1,315	3,522	2,505	1,772
황다 랑어	한국	261	148	76	265	239	29	249	851	321	246	409	277
	중국	425	472	624	375	106	394	437	511	624	723	708	581
	대만	7,98	970	1,118	1,742	1,172	891	1,259	1,070	602	1,166	639	672
	PH*	-	-	49	-	-	49	49	27	-	15	5	-
	인니	-	-	-	-	-	-	1	-	26	-	-	32
	미국	-	-	-	-	-	-	-	-	-	-	-	-
	VU*	36	26	212	152	139	211	144	207	95	165	184	23
	피지	-	-	13	-	-	-	-	-	-	-	-	-
	KI*	-	-	-	27	-	17	-	-	5	25	105	77
	MH*	-	-	45	-	-	-	-	-	-	99	52	-
	기타	1,359	630	289	1,658	954	397	1,211	1,214	518	501	527	310
	소계	2,869	2,245	2,426	4,220	2,610	1,989	3,351	3,880	2,192	2,939	2,629	1,971
눈다 랑어	한국	259	225	297	126	484	118	297	475	223	202	369	206
	중국	202	755	808	980	385	582	796	1,126	465	970	1,400	605
	대만	1,928	1,438	2,319	2,508	1,894	1,707	3,255	2,323	2,600	3,103	2,255	1,502
	PH*	-	-	-	0	-	-	-	-	-	-	-	-
	인니	-	-	-	-	-	-	-	-	-	-	-	-
	SC*	470	461	119	693	389	338	1,421	855	370	406	130	174
	VU*	52	17	378	442	259	665	177	152	146	201	183	-
	기타	110	4	378	169	147	48	80	60	103	162	111	131
	소계	3,020	2,901	3,974	4,917	3,559	3,457	6,025	4,991	3,906	5,043	4,448	2,617
남방 참다 랑어	한국	-	158	17	-	-	-	-	-	211	171	566	1,123
	대만	95	143	1	6	3	-	-	-	9	68	183	761
	호주	-	-	19	-	-	-	200	1,429	1,619	1,521	186	5,190
	소계	95	301	37	6	3	-	200	1,429	1,839	1,760	935	7,074

* VU: 바누아투 / KI: 키리바시 / MH: 마셜제도 / PH: 필리핀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2월 6일자

/ SC: 세이셸



태국, '24년 1~3분기 황다랑어 원어 수입 감소 전년도 동기 대비 11% 감소

태국 가공업체의 2024년 1~9월 황다랑어 원어 수입은 감소하였다. 원어 평균 가격 또한 소폭 하락하였다.

태국의 2024년 1~3분기(1~9월) 황다랑어 원어 수입은 전년도 동기 대비 11% 감소한 6만 930톤이다. 평균 단가는 톤당 2,057달러로 5% 하락하였다. 1~2분기 수입량은 준수하였으나 3분기 수입량은 1만 8,766톤으로 저조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수년간 태국의 주요 황다랑어 공급국 중 하나였다. 올해 1~3분기 인도네시아산 수입량은 9,739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93%로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소규모 선망선 외에 대낚시로 황다랑어를 어획하며, 이에 따라 평균 단가는 톤당 2,079달러로 높은 편이었다.

2023년 1~3분기 최대 공급국이었던 대만산의 물량은 감소하였다. 올해 1~3분기 대만산 수입량은

3,611톤이며, 평균 단가는 톤당 2,098달러로 높은 편이었다. 미크로네시아산은 2023년도 1~3분기에 이전 연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4년도 1~3분기에는 14% 증가한 6,964톤을 기록하였다. 평균 단가는 10% 감소한 톤당 1,947달러로, 선망선이 어획한 소형 개체 위주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PNG), 몰디브, 마셜제도산의 수입량은 증가하였다. 대낚시로 어획된 몰디브산 황다랑어 원어 가격은 톤당 2,125달러라는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산, 나우루산, 키리바시산의 수입량은 급락하였다. 한국 선단들은 주로 FAD로 가다랑어를 어획하며, 황다랑어의 크기는 작은 편이다. 한국은 2024년에 태국 가공업체에 매우 많은 양의 가다랑어를 수출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1월 16일자

Major Suppliers Increased Trade

Thailand: Import Of Frozen Yellowfin Tuna In M/T

Divided Into Major Origins, CFR USD Per 1 M/T, Q3

	2022		2023		2024		Diff. %	
	M/T	CFR	M/T	CFR	M/T	CFR	M/T	CFR
Indonesia	4,172	\$2,986	3,323	\$2,670	9,739	\$2,079	193%	-22%
Taiwan	12,626	\$2,349	11,948	\$2,213	8,337	\$2,098	-30%	-5%
Micronesia	7,337	\$2,025	6,102	\$2,161	6,964	\$1,947	14%	-10%
Vanuatu	6,460	\$1,890	4,809	\$1,979	6,946	\$1,878	44%	-5%
Papua New Guinea	1,760	\$1,846	5,043	\$2,021	6,531	\$2,068	30%	2%
Maldives	3,450	\$2,038	2,832	\$2,088	3,851	\$2,125	36%	2%
Marshall Islands	2,961	\$2,109	2,526	\$2,166	3,429	\$1,989	36%	-8%
Korea	9,008	\$1,946	9,162	\$2,069	3,343	\$1,600	-64%	-23%
Nauru	8,529	\$2,228	8,980	\$2,221	3,259	\$1,907	-64%	-14%
Kiribati	4,089	\$2,007	3,761	\$1,963	1,734	\$1,608	-54%	-18%
Others	14,324	\$2,155	10,325	\$2,240	6,798	\$2,665	-34%	19%
Grand Total	74,716	\$2,159	68,810	\$2,165	60,930	\$2,057	-11%	-5%

Source: Thai Customs

Powered By Atuna Analyst

(2024년 1~3분기 태국 냉동 황다랑어 국가별 수입량 및 단가)



스페인 '24년 3분기 로인 수입, 5년간 최고치

EU 외부 국가 제품 수입 증대

스페인 가공업체의 2024년 1~9월 냉동 자숙 로인 수입이 증가하였다. 이 중 EU 외부 국가 제품의 수입량도 증가하였다.

2024년 1~3분기(1~9월) 동안 EU에 수입된 자숙 로인의 양은 총 14만 9,014톤이며, 이 중 가장 큰 비중(60%)을 차지한 수입국은 스페인이다. 스페인의 수입량은 9만 95톤으로, 전년 대비 15%나 급증하였다. 평균 가격은 톤당 4,961유로로 전년도 대비 434유로 하락하였다.

스페인의 2024년 1~3분기 수입량은 지난 5년간의 연간 1~3분기 수입량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 특히 수입량이 7만 8,468톤에 그쳤던 전년도와 비교하면 회복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스페인의 가장 큰 공급국은 중국으로, 중국산의 수입량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2만 8,207톤이다. 대부분의 양(2만 4,420톤)은 이미 1분기에 자율할당 관세 적용을 위하여 일찍 수입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4월에서 9월까지의 수입량은 3,787톤에 그쳤다. 스페인은 지난 수년간 관세를 면제받는 저렴한 중국산 로인을 이용하여 왔다.

로인 수입 시 자율할당관세 할당량은 다시 한번 화

제가 되고 있다. 스페인 통조림 협회 Anfaco는 EU 규제 기관에 자율할당관세 할당량을 현행 3만 5,000톤에서 5만 5,000톤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유럽 어업을 대표하는 단체인 Europeche는 로인 할당량이 참치 선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에콰도르산 수입량은 12% 증가하였다. 이들은 1~2분기 동안 1만 1,358톤을 스페인이 수출하였고 3분기에 1만 667톤을 더 수출하였다. 평균 가격은 전년도 대비 8% 하락하였다.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과테말라산은 2024년에 전년도 동기 대비 더 많은 양을 스페인에 수출하였다.

Princes 소유의 로인 공장이 위치한 모리셔스산의 물량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작년 인도양의 어획량은 그렇게 높지 않았고 이 점이 물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평균 가격은 톤당 6,133유로로, EU 외부 국가 로인 제품의 전체 평균 가격인 톤당 4,961유로 대비 매우 높았다.

스페인은 EU 내부에서 6,241톤의 로인을 수입하였다.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162% 증가한 수치이다.

* 출처: Atuna, 2025년 1월 15일자



태국, 오세아니아산 참치 원어 수입량 증대 전년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

태국 가공업체가 중서부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오세아니아 선단으로부터의 냉동 참치 원어 수입을 대폭 증대시켰다. 가공업체는 주요 공급국으로부터의 원어 수입을 늘렸으나, 수입 단가는 하락하였다.

태국은 2024년 1~3분기(1~9월) 동안 34만 1,474톤의 원어를 오세아니아 선단으로부터 수입하였다. 단가는 톤당 1,617달러로 전년도 동기 대비 14% 하락하였다. 해당 기간 전체 원어 수입량은 65만 716톤으로, 절반 이상이 오세아니아산인 셈이다. 수입량의 대부분은 가다랑어로, 2024년 중서부태평양에서 가다랑어는 어획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였고, 태국 가공업체들은 생산 및 보존을 위하여 구매량을 늘렸다.

해당 기간 태국의 최대 공급국인 미크로네시아산의

수입량은 2배 이상 증가한 10만 286톤이다. 평균 단가는 톤당 1,642달러로,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나우루산은 7만 3,234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46%나 증가하였고, 단가는 톤당 1,572달러로 전년도 대비 19% 하락하였다.

바누아투산의 수입량은 1만 2,933톤, 키리바시산은 9,272톤이었다. 양국의 원어 단가는 전년도 대비 각각 14%, 17% 하락하였다. 마셜제도산의 가격은 톤당 1,721달러로 주요국 중 가장 비쌌다. 마셜제도산의 1~3분기 수입량은 3만 2,161톤으로, 전년도 대비 147%나 증가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1월 31일자

베트남 참치 통조림 수출, 역대 기록 경신 수출액 약 2억 9,900만 달러

베트남의 2024년 하반기 참치 통조림 수출액이 2억 9,9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하반기 최대 수출 기록을 세웠다. 5대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이스라엘, 독일, 레바논, 이집트로, 해당 국가에 전체 수출액의 62% 이상을 수출하였다. 베트남 수산물수출자생산자협회(이하, VASEP)는 이러한 성과가 2024년 베트남 참치 부문이 겪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수 기준 수출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베트남 무역업체 측은 참치 통조림 수요가 대부분의 시장에서 증가하였으나, “앞으로 점점 더 치열해질” 공급국 간의 경쟁을 비롯한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Atuna에 따르면 이러한 어려움에는 EU의 옐로카드 조치 해제라는 과제와 50cm 이상 가다랑어만 어획할 수 있는 정부 규제 준수 필요성 등이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2월 3일자



태국-EFTA, 자유무역협정 체결

EU 비가맹국 4개국 연합

태국은 지난 1월 23일 유럽자유무역연합(이하, EFTA)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체결하였다. EFTA는 유럽연합(이하, EU) 비가맹국인 4개국(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의 자유무역 연합이다. 다만 태국산 참치 통조림이 이번 FTA에서 면세 대상이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지난 10년 동안 EFTA 국가와 태국 간의 무역은 꾸준한 성장을 보였다. 2023년에 양자 간 상품 무역은 32억 유로를 돌파했고, 태국은 거의 4억 유로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 EFTA 국가에서 태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으로는 시계, 생선 및 갑각류(주로 냉장 및 냉동 연어, 넙치, 고등어), 제약 제품, 전자기기, 기계 제품이 있다.

태국의 EFTA 국가에 대한 주요 수출품은 전자기기, 기계 제품, 시계 및 시계 부품, 차량 및 철 구조물이다. 주요 어류 제품에는 새우와 참치가 있다. 런

던경제대학(이하, LSE)이 발표한 FTA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태국산 어류 제품은 무역기술장벽(TBT) 및 위생검역조치(SPS) 외에도 수입 관세가 부과된다. 이를 낮추면 태국의 EFTA 국가에 대한 어류 제품 수출이 증가하고 이러한 국가의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Atuna 분석가에 따르면 2023년에 태국이 스위스에 참치 통조림 5,587톤, 노르웨이에 약 727톤, 아이슬란드에 264톤을 수출하였다. LSE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아이슬란드는 태국산 상온보관 참치 제품 수입 시 10% 관세를 부과한다. 다른 데이터에 따르면 태국에서 노르웨이로 수입되는 신선, 냉장 및 냉동 참치에는 관세가 없지만 상온보관 참치 제품의 경우는 불확실하다.

* 출처: Atuna, 2025년 1월 24일자

마셜제도 마주로항 전채 활동, 2024년에 급감

전년도 대비 46% 감소

마셜제도의 주요 전채항인 마주로에서의 2024년 전채 활동이 전년도 대비 46%나 감소하였다.

마셜제도해양자원청(이하, MIMRA)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동안 마주로에서는 총 160건의 전채 활동이 있었다. 전년도 전채 활동은 총 294건이다.

MIMRA는 2024년의 전채 활동 건수가 지난 10년을 통틀어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채 활동의 연간 평균 건수는 373건

이었다. 해당 기간 중에서도 2015년의 전채 건수는 50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24년 마주로항에서 전채한 참치의 양은 총 11만 5,708톤이다. 이 중 10만 9,299톤이 가다랑어이고, 4,566톤이 황다랑어, 1,853톤이 눈다랑어이다.

최다 건수를 기록한 것은 대만 선망선단(61건, 전체의 38%)이며, 그 다음은 마셜제도(36건)이다.

* 출처: Atuna, 2025년 1월 10일자



日, 선망선 3척 신조로 경쟁력 강화 목표

日 해외선망협회장 인터뷰

일본 해외선망어업협회의 나가오 카즈히코 회장은 지난 1월 17일, 도쿄도내에서 연초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나가오 회장은 작년 10월의 일본 어업구조개혁 종합대책사업의 중앙 협의회에서 선박 3척의 인가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회장은 대형화에 따라 외국선과 손색없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계속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다.

새로 건조하는 3척은 995톤으로, 기존 760톤 형을 웃돈다. 신조선은 어장의 용적을 축소하여, 선원실의 완전 개인실화 실현 및 안전성의 확보에 삭감분을 충당한다. 나가오 회장은 “선원의 일하는 방법이나 조업의 안전, 자원 관리 기여 등의 과제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선박으로, 해외 선박과도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3척의 건조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이 협회는 지금까지 11척의 선박을 대형선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번에 대신 건조로 14척이 된다. 나가오 회장은 남은 소형선들도 신조 사업에 관심을 보인다면, 대형선으로의 전환에 의욕을 나타냈다.

2024년의 일본 선단 어획 실적(속보)은 전년도 대비 10% 증가한 14만 6,000톤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10% 감소한 343억 엔이다. 생산 금액의 감소는 2023년이 호조였던 것이 원인이며, 실제로는 과거 5년의 평균 수준이다. 시즈오카·야이즈 어항의 시세는 연간 내내 격렬하게 요동쳤고, 여름철 이후는 냉동고 부족이 현저해지면서 침체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영향은 완화되고 있다고 회장은 설명하였다.

일본 국내 냉동고의 공간 부족은 어획량이 정체되는 요인이 되었다. 해당 협회의 회원사 선박들은 2024년에 길게는 2~3주 정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도서국에 지불하는 입어료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엔저로 실질적인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2025년의 조업 조건은 가장 중요한 파푸아뉴기니, 미크로네시아를 중심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확보하였다고 회장은 밝혔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1월 24일자





인도네시아, GDST 추적 표준 최초 도입

수산물 이력추적 표준

인도네시아가 자국 참치 산업의 ‘바다에서 식탁까지’의 이력추적성 (traceability, 물품의 생산부터 최종소비나 폐기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대 진전을 이루어 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수산물 이력추적 시스템인 ‘Stelina’를 개선하여 수산물 이력추적 표준인 ‘글로벌 수산물 이력추적 다이얼로그(Global Dialogue on Seafood Traceability, 이하, GDST)’와 호환하도록 하였다. 이 표준을 택한 국가는 인도네시아가 최초이다.

‘Stelina’는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인도네시아산 수산 제품의 이력추적 정보를 협력국과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시스템은 어

획물의 출처, 취급, 적법성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수산물의 이력을 ‘어선에서부터 시장까지’ 추적한다. Stelina는 IUU 어업을 퇴치하고 참치 어족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수산물에 대한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려는 인도네시아의 노력에 있어 필수적이다.

GDST는 신뢰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산물 공급망의 추적을 위한 공통 언어를 만들고 공유하는 것이 목적인 비영리 재단이다.

인도네시아는 주요 참치 어업 국가로, EU에는 자속로인을 주로 공급하며, 미국에는 통조림과 로인 등을 공급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추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출처: Atuna, 2025년 1월 17일자

프랑스 선사, 선망선 3척 오만 선사에 매각

인도양 조업선...수용량 총합 4,800톤

프랑스 참치 선사 CFTO사는 자사의 선망선 ‘Drennec’호, ‘Glenan’호, ‘Trevignon’호 3척을 오만 선사 Rawanq Al Salam International사에 매각하였다. CFTO사는 인도양다랑어위원회(이하, IOTC)에 등재된 선망선의 수를 5척으로 감축하였다.

CFTO사가 매각한 선박은 2005~2006년 동안 프랑스 Piriou 조선소에서 건조한 것으로, 선장 84.1m에 어획물 수용량은 1,600톤이며, 냉동고 용량은 250톤이다. 해당 선망선은 현대적인 항해 보조 도구와 첨단 전자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다.

CFTO사가 이번에 매각한 3척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최대 규모의 선박으로, 수용량은 총합 4,800톤이다. CFTO사에 남은 5척의 프랑스 국적 인도양 선망선은 1996~2016년 사이에 건조된 선박으로 수용량은 총합 6,516톤이다. 해당 선박들은 ICCAT 선박 명단에도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서양에서도 조업이 가능하다. CFTO사는 또한 수용량 1,794톤 규모의 이탈리아 국적 인도양 조업 선망선을 보유하고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1월 17일자



아프리카 참치 자원 위협 지속

국가의 관리 부재에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 가중

소말리아의 참치 자원이 여전히 불법 어업으로 위협 받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초국가적 범죄 대응 이니셔티브인 ENACT 아프리카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황다랑어를 포함한 소말리아의 어업은 IUU 어업으로 인하여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주로 중국, 이란, 파키스탄 등의 국가에서 온 외국 선박에 의한 이러한 착취는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생태계를 훼손하며, 소말리아에 연간 약 3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소말리아의 취약한 해양 거버넌스, 부패, 어업법의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저인망어업과 어류 채집 장치와 같은 파괴적인 관행이 만행하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서는 적절한 관리가 시급하게 도입되지 않는다면 황다랑어는 10년 안에 개체수가 70%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내전으로 인하여 악화한 소말리아의 오랜 거버넌스 문제로 인하여 해양 모니터링이 어려워졌다. 연방 및 지역 당국 간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는 규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2018년 중국 기업과의 계약을 포함하여 논란이 된 외국 선단과의 계약은 시스템적 문제를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선박(Liao Dong Yu)은 2018년 규정된 법에 따라 조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신 이 선박은 의심스러운 방법을 통하여 푼틀란드 정부 당국으로부터 어업 면허를 취득하였다. 사이드 압둘라히 데니 푼틀란드 대통령의 측근인 사업가이자 상원의원인 다히르 아얀데가 이를 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소말리아 어업의 거버넌스 약화에 정치 세력의 영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라고 보고서는 설명하였다.

“그동안 중국 선박은 금지되고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말리아 해안 인근에서 불법적인 참치 조업에 계속 관여하고 있다. 이들은 막대한 양의 참치를 잡기 위하여 대형 선망선 및 연승어선을 동원하고, 심지어 다이너마이트 폭파를 이용한 어업까지도 자행한다.”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월 20일자





2024년 12월 식물성 기름 가격 급등

6월 이후 상승세...올리브유 10월 말부터 스페인에서 하락

세계 식품 및 식량 가격은 2024년 하반기에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식물성 기름 가격의 급등이었다.

유엔 세계식량기구(이하, FAO) 식품가격지수는 12월에 127.0포인트로, 전년도 동월 대비 8포인트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2022년에 비하면 낮다.

FAO 식물성 기름 가격지수는 12월에 평균 163.3포인트로, 2023년 동월 지수 대비 33.5%나 상승하였다. 2024년 6월 이후 식물성 기름의 가격 지수는 팜유, 해바라기유, 대두유, 유채씨유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상승하였다. 팜유 가격은 동남아시아의 호우로 수확이 타격을 입어 예상보다 낮은 생산량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로 인하여 상승하였다. 대두유 가격도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인하여 계속 상승하였다. 해바라기유와 유채씨유는 세계적으로 공급이 긴축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하여 국제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였다.

EU 데이터에 따르면, EU 최대 해바라기유 공급국인 우크라이나산의 1월 8일 가격은 전년도 동기 대비 53% 상승한 톤당 1,026유로이다.

EU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월 5일까지 약 105만 톤의 해바라기유를 수입하였으나, EU 통조림 가공업체는 이 물량의 일부만을 사용하였다.

올리브유는 연중 높은 가격을 유지하였으나, 스페인 당국에 따르면 10월 말부터 스페인에서 가격이 하락하였다.

여러 뉴스 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남부 유럽의 기후와 가뭄이 올리브 수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가격이 대폭 상승하였다. 최근 스페인의 가격 하락은 2024~2025년 시즌에 수확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업계 추정치에 힘입은 것으로, 특히 스페인, 그리스, 튀니지와 같은 주요 생산국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은 세계 올리브 오일 생산량의 약 40%를 생산하며, 국제 표준이 되는 시장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2024년 마지막 몇 주 동안 이러한 가격 하락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다른 올리브유 생산 EU 국가에서는 관측되지 않았다.

* 출처: Atuna, 2025년 1월 13일자





아르헨, 2025년 일렉스 오징어 어획 좋은 시작

어획량, 품질과 어체 크기 모두 고무적인 수치 기록

‘Hai de Li 701호’ 선박은 650톤 이상의 일렉스 오징어를 싣고 푸에르토 마드린에 도착하여 2025년 시즌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아르헨티나 채낀기 선단은 매일 40톤이 넘는 어획량을 기록 중이며, 국제 시장은 모든 공급량을 흡수하고 있다. 현재 여러 채낀기 선박이 같은 항구로 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어업 역사에서 2025년 첫 주에 관측된 것과 같은 어업 호기는 찾기 어렵다.

상기 선박은 지난해 12월 28일 부에노스아이레스 항에서 출항하여 북위 49도선 이남에서 공식적인 조업 시작을 알렸다. 출항 후 19일 중 16일은 실제 조업에 해당하며, 첫 48시간과 마지막 24시간은 어장을 오가는 항해에 소요되었다.

이 조업 기간 일일 평균 어획량은 40톤에 달했으며, 이는 아르헨티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상당한 자원을 발견하였다는 희망을 제공하였다.

어획된 오징어의 품질은 통상적 이 시기에 비해 매우 우수하며,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는 상업용 크기이다.

전체 어획량의 크기별 비중을 보면 S 사이즈가 58%, SS 사이즈가 28%, M 사이즈가 14%였다. 이러한 어획량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품질과 양 측면에서 모두 고무적인 수치이다.

아르헨티나 선단은 현재 북위 46도선 북쪽의 약 50~30해리에 이르는 광범위한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일일 어획량이 70톤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날도 있으며, 이는 오징어 생산의 상당한 경제성을 알려준다. 또한 트롤 어선들은 대구 어

획량에 오징어가 함께 어획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조업의 품질과 경제적 가치를 향상한다.

국제 시장의 반응은 이보다 더 긍정적일 수 없다. 일렉스 오징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여 어획된 제품의 원활한 상업적 판로가 보장된다.

2024년 말까지 중국-아르헨티나 합작 선박을 포함한 아르헨티나 국적의 선박이 파타고니아 남부 수역에서 시험 어업을 시작하였다. 1월 7일부터 남위 44°~52°에서 조업이 허가되었으며, 스페인과 아시아 선박을 포함한 각국 선박이 조업에 참여하였다. 마르텔플라타는 32척의 통발 어선이 출항하는 주요 물류 허브로 남아 있다.

1월 12일까지 선단은 두 개의 주요 어장에서 조업을 재개하였다. 첫 번째 지역은 푸에르토 데세아도 인근에 9척의 선박이 조업하였다. 48척의 선박으로 구성된 두 번째 구역은 더 남쪽에서 조업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국내 조업과 더불어 아르헨티나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에서 조업하는 외국 선단, 특히 아시아 선박의 조업이 증가하고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조업은 특히 푸에르토 데세아도, 코모도로 리바다비아, 푸에르토 마드린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중국 내 아르헨티나산 일렉스 오징어 가격은 2024년 10월과 11월에 5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일본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출처: Pescare, 2025년 1월 16일자.

UndercurrentNews, 2025년 1월 14일자



日 언론, '25년 초 해외 오징어 어업 동향 보도

중국 수요 강화로 가격 강세

아르헨티나 일렉스 오징어의 어업이 시작되었다. 일본 무역회사 소식통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EEZ 내에서 1일 1척당 30~35톤이 어획되고 있다. 어획물의 구성은 1미당 100~200g이 65%, 1미당 200~300g이 35%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중국 세력의 매입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고가 추세로 시작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중국 선단 등의 공해 일렉스 오징어 어업도 보통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칠레의 아메리카 대왕오징어(홍볼트 오징어) 어업은 작년보다 약 1개월 이른 1월부터 시작되었다. 작년보다 어기가 길어졌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고 부족으로 인하여 각국의 매입 의욕이 강해지면서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었다. 페루

대왕오징어 어업의 수량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고가 추세가 계속된다. 관계자는 상황을 주시 중이다.

중국 선단의 적도오징어(페루에서 2,000해리 이상 떨어진 서부 적도 해역에 서식하는 오징어) 어업의 경우, 현재 적도상에서 250~300척이 조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1척당 4~5톤을 어획하고 있으며, 어획물의 크기는 1미당 500g 이하와 500g~1kg 위주이다. 1월 중순 중국에서의 가격은 톤당 2만 위안 전후이다.

작년 말부터 어획량이 증가 추세였으나,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시장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비싼 가격대가 계속되고 있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1월 20일자

오징어 트롤 신조선, 포클랜드제도 도착

스페인 국적 합작선

선장 75m 규모의 남대서양 오징어 트롤 신조선이 포클랜드제도에 도착하여 2025년 오징어 어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조선 'Hadassa Bay'호는 스페인 비고의 Armon 조선소에서 건조되었다. 포클랜드제도에 본사를 둔 Beauchene Fishing사와 스페인 비고의 Coepermar사가 선박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해당 신조선은 2020년 사고로 침몰한 선박인 Baffin Bay호를 대체한다.

해당 신조선은 스페인 Josmar사가 제작한 현대식 선상 가공시설을 보유한다. 신조선에는 또한 일일 150톤의 용적량을 보유한 14개의 어창이 있다. 또한 연료 비용을 절감하는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선박은 스페인 국적선으로, 주로 포클랜드 제도에서 조업할 예정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월 24일자



러 명태 그룹, 2025년 어획량 200만 톤 예상

美 어획량 계속해서 앞설 것으로 예상

러시아명태어업협회(이하, PCA)는 2025년 명태 어획량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미국 어획량보다 많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러시아의 2024년 명태 어획량은 199만 8,000톤으로, 이전 연도 대비 2% 많았고, 미국 어획량과 비교하면 47% 더 많았다. 올해 러시아의 TAC는 246만 톤으로 미국보다 56% 더 많다.

알렉세이 부글락 PCA 회장은 “어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당수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라며 “해양학자와 기상 예보관에 따르면 겨울철과 봄철 얼음 상황과 기상 조건이 어업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2024년도 명태 봄 어기의 어획량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을 돌파하였다. 이 중 83만 톤은 오토츠크해에서 어획되었다.

그러나 불리한 자연 조건으로 인해 베링해의 명태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PCA는 우려하였다.

“과학자들의 비관적인 추정치에 따르면, 자원의 예상 연령 구조와 러시아 수역으로의 어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때, 올해 어업 상황은 과거에 비하여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부글락 회장은 말하였다.

2024년 베링해의 TAC 소진율은 70% 미만, 즉 50만 톤 미만 수준이라고 PCA는 밝혔다. 어장별 상황을 감안하면 2025년 러시아의 명태 총 어획량은 190만~2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 러시아의 명태 총 TAC는 어업 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향되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월 22일자

러 명태 A시즌 어획량 증가 예상돼

1~4월 80만 톤 중후반대 예상

러시아 최대 어장인 오토츠크해 명태 어업이 1일 시작됐다. 러 명태어업자협회에 따르면 1월 1일~4월 10일 A시즌 어획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46% 늘어난 86만~88만 톤으로 예상된다.

올해 극동 TAC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246만 500톤으로 증가하였다. 그중 오토츠크해(북오토츠크, 서감차카, 감차카-쿠릴 등 3개 어장)의 TAC는 6% 증가한 100만 5,000톤에 이른다.

해당 수역의 A시즌은 4월 10일까지 100일간,

B시즌은 10월 15일부터 시작하여 연말까지 계속된다. 얼음 상태나 기상 조건은 향후 양호하여 조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동 협회는 주간 최대 어획량을 7만 톤으로 전망한다.

동 협회에 따르면, 동국 극동 전체의 작년 명태 어획량(속보치)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198만 5,000톤으로, 26년 만의 최대치로 추정된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1월 6일자



러 2024년 중국행 명태 수출 12% 감소

제재 영향...단가도 하락

홋카이도 기선련에 따르면, 중국이 2024년 수입한 러시아산 명태 H&G(머리, 내장 제거)의 양은 전년도 대비 12% 감소한 48만 3,000톤이며, 평균 단가는 25% 하락한 톤당 993달러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가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 주요 소비지인 유럽과 미국으로의 재수출에 지장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러시아의 명태 생산 비중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하여 거래량이 감소하였다. 중국 경제 악화 또한 단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산 명태는 중국에 H&G로 수출된 뒤 펠렛으로 가공되어 소비지인 유럽과 미국으로 재수출된다. 그러나 EU는 2022년 3월 이후 러시아의 수산 제품 수출자 리스트 갱신을 정지하였고, 2024년부터는 제3국 가공품을 포함한 러시아산 수산물을 수입할 때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영국은 2022년

7월부터 러시아산 흰살생선 관세를 35%로 인상하였고, 미국은 2022년과 2023년 제재를 통하여 러시아가 원산지인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대중국 수출을 기점으로 하는 기존 러시아의 명태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러시아는 그 대책으로 명태의 국내 시장 공급을 강화하였다. 연육의 생산 비율을 높여서 2024년에는 전년도 대비 47% 증가한 7만 톤 이상을 생산하는 등 공급 구조를 조정하고 있다.

러시아 국내의 명태 H&G 도매가격(25cm 이상, 블라디보스토크 창고 가격)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kg당 87루블 전후에서 1월 20일 단숨에 130루블(약 200엔)까지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2월 3일자

러, 1월 말 시점 오호츠크해 명태 21만 톤 어획

안전 조업을 통한 긍정적 어획 달성

러연방 조업감시센터(CFMC)의 1월 26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20만 7,800톤의 명태를 어획하였다. 오호츠크해에는 현재 61척의 선박이 조업하고 있다.

극동 수역의 대구 어획량은 1만 2,400톤으로 지난해 수준의 106% 수준에 달하였다.

극동 수역의 청어 어획도 높은 성과를 보였다. 북오호츠크 수역에서 어획한 8만 9,800톤의 청

어(지난해 대비 129.5%)를 포함하여 극동수역에서 9만 7,000톤의 청어(지난해 대비 126.5%)가 어획되었다. 청어 어업에는 모두 18척의 선박이 조업하고 있다.

연해주 수산물 보관 창고의 점유율은 45%로 1만 7천톤 이상의 수산물을 적재한 19척의 선박이 항구에 접근하고 있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5년 1월 29일자



유럽 명태 A시즌 필렛 거래가, 전년도 대비 상승 러시아 가격도 상승

러시아와 미국의 2025년 명태 어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일부 A시즌 계약은 이미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5년 A시즌 미국 해상 및 육상 냉동 명태 PBO(가시 제거) 필렛 초기 계약은 전년도 대비 상승한 가격에 체결되었다.

일부 러시아 PBO 필렛 계약 또한 체결되었으며, 가격이 매우 낮았던 2024년에 비하여 매우 높은 가격에 합의되었다고 소식통은 전하였다.

A시즌 미국 PBO 필렛 초기 가격은 톤당 3,600달러에 형성되었다. 이는 2024년 B시즌 대비 톤당 약 100달러 상승한 수준이다.

미국 동부 연안 지역으로 운송되는 미국 국내 시장

대상 계약은 톤당 3,800~3,900달러 선에서 형성되는 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하였다.

러 PBO 필렛의 초기 계약은 톤당 3,000~3,100달러 선에서 형성되는 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하였다. 러시아 PBO 필렛과 러시아산 H&G(머리, 내장 제거) 제품을 가공한 중국산 이중 냉동(선상 냉동 후 해동하여 가공한 다음 재냉동한 제품) 필렛은 현재 EU의 면세 쿼터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EU 수출 시 13.7%의 관세가 붙는다.

최소 1개 이상의 주요 유럽 가공업체가 이 가격대에서 대량 공급에 합의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미국 공급업체 모두에게 A시즌의 기준을 제시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월 20일자

러 대기업, 쿠릴 열도에 명태 공장 가동 필렛, 민스 일일 100톤 이상 생산

러시아 수산 대기업 기드로스트로이 그룹은 지난해 쿠릴 열도에 수산가공장 2곳을 신설하였다. 투자액은 약 32억 루블이다. 이투루프 섬과 시코탄 섬에 건설된 해당 공장은 명태를 가공한다고 러시아 수산청은 지난 6일 발표하였다.

신공장은 투자 목적 어획쿼터제도(투자쿼터) 제2탄의 경매 낙찰에 근거하여 건설되었다. 필렛과 민스 제품을 하루 최소 100톤 생산하고, 어분·어

유를 20톤 생산할 예정이다.

기드로스트로이 그룹은 1991년에 설립하였고, 2018년 어획량은 33만 5,000톤에 이른다. 2019년에는 65억 루블을 투자하여 쿠릴 열도 시코탄 섬에 수산 가공장을 건설하였다. 2026년에는 사할린 남부의 항구도시 코르사코프 지구에 새로운 수산가공장을 완성할 계획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1월 6일자



러 2024년 명태 연육 생산, 역대 최대 수준

2024년 50% 증가한 7만 톤 기록

러시아 명태어업자협회(이하, ADM)가 지난 1월 2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4년 러시아 명태 연육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47% 증가한 7만 800톤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해당 협회에 따르면 2024년 명태 연육의 세계 생산량은 90만 5,000톤이다. 이 중 미국산이 13% 감소한 17만 5,000톤, 동남아시아산이 5% 감소한 31만 8,000톤이다.

러시아는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 연육을 수출한다. 2024년 1~11월 중국행 수출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43% 증가한 2만 2,700톤이다. 2024년 연간 한국행 수출량은 1만 2,000톤이다.

현재 러시아의 명태 연육은 어선 7척과 육상 3개 공장에서 생산한다. 해상에서의 생산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나, 2024년에는 육상 가공의 생산량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ADM의 2024년 명태 어획량 추산치는 전년도 대비 2% 증가한 199만 8,300톤이다. 오호츠크해에서의 어획량이 8% 증가한 104만 1,000톤, 쿠릴열도 수역이 21% 증가한 25만 8,000톤이다. 한편, 베링해에서의 어획량은 48만 6,200톤으로 TAC 소진율은 70% 이하였다. 2025년 어획량은 극동 전체를 통틀어 190만~200만 톤으로 예상된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1월 20일자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와의 수산 부문 합의

명태 2만 톤 및 청어 5,000톤 할당

러시아 측은 2025년부터 러시아 연방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우즈베키스탄에 명태와 청어 어획 할당량을 할당하는 데 동의하였다.

카흐라몬 울다세프 우즈베키스탄 농업부 차관과 안드레이 야코블레프 러연방수산청 부청장은 화상회의로 어업 협상을 진행하여 추가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즈베키스탄 농업부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2025년부터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의 극동 수역에서 명태 2만 톤과 청어 5천 톤의 쿼터를 우즈

베키스탄에 할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회의 결과, 양측은 어업 및 양식 분야에서 과학 및 기술 협력과 공동 연구를 개발하고 어업 인력의 자격을 개선하며 경험을 교환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

러시아 측은 매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러시아 연방 배타적 경제 수역의 수생 생물 자원에 대한 어획을 위하여 합작 등 관련기관에 어업허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출처: Fishnews, 2025년 1월 13일자



알래스카 명태 어선 노후화, 극복 방법은 없나?

美 업계, 명태 어선 낙후 우려

아틱 스톤 매니지먼트 그룹은 작년에 새로운 명태 공장 트롤 어선인 아틱 피오르드(Arctic Fjord)를 건조하였는데, 39년 회사 역사상 중대한 업적이었다. 이 선박은 30년 만에 미국에서 새로 건조된 명태 조업선이라는 이유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러시아의 경쟁 명태 생산업체와는 완전히 대조적인데, 예를 들어 러시아 어업 회사(RFC)는 작년에 8억 달러 규모의 선단 개편의 하나로 계획된 10척 중 6번째 명태 '슈퍼 트롤선'을 건조하였다.

실제로 러시아 기업은 정부가 운영하는 현대화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2016년 이후 수십 척의 새로운 어선과 가공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알래스카 명태 산업의 어획-가공 부문의 업그레이드는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어 이해관계자는 업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드는 비용 차이는 여전히 엄청나며, 이는 미국 명태산업이 러시아에 뒤처진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알래스카 어민 연합(UFA)의 매트 앨워드 회장은 IntraFish와의 인터뷰에서 말하였다.

현재 러시아에서 건조 중인 것과 유사한 공장 트롤 어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데 드는 정확한 비용은 명확하지 않지만, 업계 경영진은 선박의 기술 수준에 따라 2억 5천만 달러에서 최대 5억 달러까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한다.

신규 공장 트롤 어선 건조 비용이 1억 달러 수준인 러시아와 비교하면 미국 기업이 신규 선박 건조에서 뒤처진 이유를 금방 알 수 있다.

러시아는 최근 국영 프로그램을 통하여 역대 최대 규모이자 가장 비싼 어선을 그 가격에 건조하였다. 이 선박은 명태 필렛, 연육, 어유 및 어분을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태평양 연어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일부 업계 분석가들은 비용 차이의 원인을 존스법으로 돌리기도 한다. 이 난해한 미국 법은 1920년대에 전시 국가 안보 조치로 제정되었다. 이 광범위한 법의 한 가지 구성 요소는 미국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상선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영토의 두 지점 간에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에서 문서화되며 미국 소유의 선박이어야 한다.

미국의 인건비와 핵심부품의 비용적 불리함 때문에 미국 조선업체들은 목표 시장이 제한되고, 비용 절감을 위해 규모를 확대할 수 없다. 미국 선박은 국제 상업 시장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드는 총비용의 3~5배에 달하기 때문에 자본 집약적인 전략적 움직임은 잠재적인 이점에 비해 너무 위험하다.

최신 미국법도 북태평양 선단의 선박 현대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북태평양 선단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 건조되었다. 상당수는 1980년대 중반에 외국 조선소에서 재건되었다. 외국 조선소에서 재건된 선박에 대한 미국 어업 특권을 거부하는 1987년 해양오염방지법은 이러한 관행을 대부분 종식시켰다. 하지만, 북태평양 상업 어선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3척의 신규 선박을 건조해야 하며, 2022년에는 연간 5척씩 증척하여야



했으나 그러지 못하였다.

알래스카 명태 어획 가공업체의 한 임원은 IntraFish와의 인터뷰에서 노후화된 선단이 알래스카 명태 제품의 품질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는 미국 명태 업체들이 일정 수준의 생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후화된 배의 부품을 교체하는 데 민첩해졌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선박은 회사의 전체 운영 비용을 증가시켰다. 이 경영진은 노후화된 어선을 유지하는 것을 오래된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데 따르는 물류 및 재정적 골칫거리에 비유하였다.

금리와 건설 및 인건비가 둔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크게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업계는 향후 몇 년 동안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기에 좋은 상황이 아니다.

작년에 의회에 발의된 새로운 초당적 법안인 SHIPS 법은 "국제 무역에서 미국 건조, 미국 국적 선박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상업용 선단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미 정부는 국제 상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250척의 미국 국적 선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안보 요건을 충족하는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군사적으로 유용한 민간 소유 선박"에 대한 입찰을 요청할 것이다.

* 출처: IntraFish, 2025년 2월 5일자

러, 어류 교환 거래 논의 중 가격 중개 조직의 폐단 해결 필요

“현재 정부는 생선 교환 판매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FAS와 농업부 모두 일반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지지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장외 거래가 아닌 장외 계약 등록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상업 및 상품 거래소(СП6МТCБ-SPIMEX) 이고르 아르테미예프 대표는 말하였다.

동시에 아르테미예프는 공장 공급을 기반으로 한 냉동 생선은 거래소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냉동 명태는 다른 어종을 계산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전환 계수를 알고 있다. 그리고 시장 가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전체 판매 시스템은 투명해질 것이다.”라고 SPIMEX의 대표는 덧붙였다.

생선 교환 판매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거래소 대표는 2016년에 명태 시장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독과점방지국(FAS)을 언급

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선 운송의 물류는 전적으로 주에서 자금을 지원하며(보조금 100% 적용) 판매로 인한 소매 네트워크의 이익은 미미하다.

“동시에 명태 어부는 kg당 70루블을 벌고 모스크바에서는 명태가 kg당 200, 심지어 250~300루블을 번다. 러시아에서 생선 가격이 고기와 같은 이유를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더 비싸며, 이 과정에서 누가 이익을 얻나? 유통을 따라 상품을 재판매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풀리는 중개 조직이 있음이 밝혀졌다. 즉, 국내 수산시장에서 기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FAS가 판단하였다. FAS 연구는 수산업에서 세율을 인상하기로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기생 시스템에 대한 최선의 치료법은 무엇일까? 바로 상품 거래소이다”라고 거래소 대표는 말하였다.

* 출처: Fishnet, 2024년 1월 23일자



日 24년도 콩치 어업, 약 3만 9,000톤으로 종료 전년도 대비 58%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부족

일본 전국 콩치붕수망어업협동조합(이하, 어협)이 공표한 2024년 전국 콩치 어획량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3만 8,695톤이다. 어획 금액은 78% 증가한 179억 8,163만 엔이다.

홋카이도에서 양륙된 물량은 전년도 대비 60% 증가한 2만 3,904톤이고, 혼슈에서는 55% 증가한 1만 4,791톤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홋카이도가 87% 증가한 107억 7,278엔, 혼슈가 65% 증가한 72억 886만 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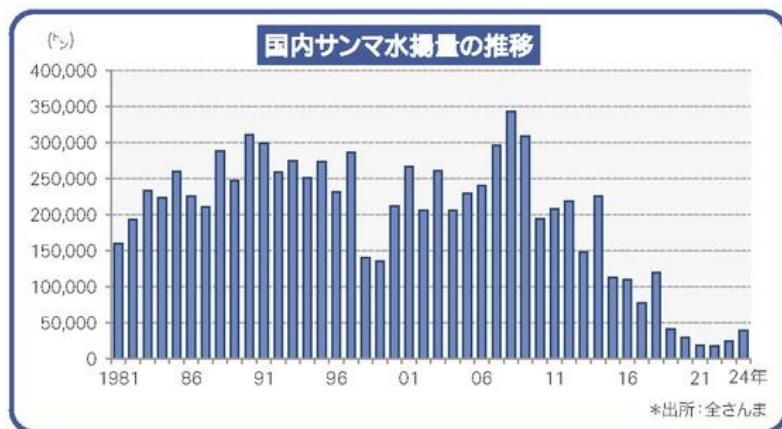
어협 측의 견해에 따르면 자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지만, 수온으로 인하여 어군의 밀집도가 높았고, 북태평양어업위원회(NPFC)의 TAC에 의하여 대만이나 중국의 어선이 조기에 어장에서 철수한 것 등의 요인이 작용하여 어획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의 자원량을 감안하면 현 TAC는 과도한 것으로 간주되나, 2024년 NPFC가 새 규칙을 채택하면서 매년 최대 10%까지 TAC 수정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콩치 연간 어획량은 1983~2014년의 32년 동안 4개년을 제외하고 매년 20만 톤을 넘어섰다. 2017년에 처음으로 10만 톤 미만을 기록한 후, 2021~2023년은 2만 5,000톤 미만을 기록하였다. 일본 수산연구교육기구 등은 북태평양 콩치 자원 평가에서 다수 국가의 어획 압력이 증가한 2007년 이후 남획된 연도가 많아, 2009년 이후의 친어량(성숙한 개체의 양)은 어획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요 자원량(MSY)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1월 10일자



(1981~2024년 일본 콩치 연간 어획량 그래프)



2024년 세계 해수온, 역대 최고치 갱신

EU 기구 발표...남극, 북극 제외 평균 20.9도

EU 기상정보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는 지난 1월 10일 발표에서, 2024년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1.6도 상승한 15.1도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1850년 이후로 가장 높은 기온이다. 기후 변화 대책 국제 협정인 '파리 협정'이 지정한 상승폭의 규제 목표치인 1.5도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해당 기구에 따르면, 2024년의 기온은 이전 역대 최고치였던 2023년보다도 0.12도 높다. 기온 상승의 요인으로, 인간의 활동에 따른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량 증가, 태평양 적도 동부의 해면 수온이 상승하는 엘니뇨 현상 등이 지목된다.

해수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북극과 남극 권을 제외한 바다의 평균 해수온은 20.87도로,

2020년까지의 30년 평균치보다도 0.51도 높다. 해수온 상승으로 수증기가 늘어나 열파나 호우 등의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파리 협정의 목표는 단일 연도의 수치가 아니고, 적어도 20년간의 평균을 기초로 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2024년에 1.5도를 넘은 것이 목표 달성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 운영주체인 유럽 중기기상예보센터 기후전략 책임자 사만다 버지스는 "파리 협정에서 정의한 1.5도 수준을 넘어서기 직전에 있다."라고 말하며,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1월 16일,

Climate Home News, 1월 10일자

우크라이나, 2024년 남극 어획량 기록 경신

5척의 선박이 이빨고기 및 남극 크릴 2만여 톤 어획

2024년 우크라이나 선박은 2023년보다 54% 증가한 약 2만 톤의 남극 수산 생물자원을 어획하였다. 5척의 선박이 1만 9,075톤의 크릴과 905톤의 이빨고기를 어획하였다.

"2024년 동안 남극 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이하, CCAMLR) 수역에서 우크라이나 국적 선박은 1만 9,980톤의 귀중한 남극 수생 생물 자원을 어획하였다."라고 우크라이나 수산청은 말하였다.

이는 2023년의 1만 2,945톤보다 54% 증가, 2022년의 9,659톤보다 107% 증가한 수치이다.

2024년 남극해 수역에서 조업 한 우크라이나의 SIMEIZ, KOREIZ, CALIPSO, MARIGOLDS 선박은 이빨고기를, MORE SODRUZHSTVA 선박은 남극 크릴을 조업하였다.

참고로, 지난해 남극 및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및 남극 크릴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 단체가 수생 생물자원의 특별 사용을 위해 지역 예산에 720만 UAH(흐리브냐) 이상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2023년 지급액을 110만 UAH 초과하는 수치이다.

* 출처: Unn.ua, Odessa-journal.com,

2024년 1월 22일자, 24일자



美 장관 지명자, 러 수산물 강경 대응 의사 밝혀 인준 심문서 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하워드 루트닉 후보자는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강경 조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1월 29일 개최된 내각 후보자 인준 청문회에서, 수년간 러시아산,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해 온 댄 설리번 알래스카주 상원의원은 루트닉 후보자에게 알래스카산 생선의 판매 증진을 도모하고 러시아와 중국산 생선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저지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루트닉 후보자는 러시아와 중국산 생선을 배제할 것이라며 강경 기조 유지 의사를 천명하였다.

미국은 2022년 7월 러시아에서 수산물 제품의 수

입을 전면 금지하고, 또한 2023년 12월에는 러시아가 원산지일 경우 제3국이 가공한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취하였다.

루트닉 후보자는 또한 “관세는 상호성을 만들어내고, 공정하게, 적절하게 대우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기조를 변호하였다.

루트닉 후보자는 또한 미국 해양대기청(NOAA) 축소 또는 이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이러한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캠페인과 연관된 정책 청사진에 나온 바 있었으나, 루트닉 후보자는 “나에게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 출처: Seafoodsource, 핫키이도 기사원, 2025년 2월 4일자

포르투갈 정부, 외국인 어선원 증대 추진 선원 부족으로 10~15% 선박 출항 불투명

포르투갈 정부는 외국인 선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어선원 요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안하였다.

포르투갈 농수산부 장관 호세 마누엘 페르난데스는 의회 본회의에서 “어업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이지만 모든 선박을 안전하게 관리할 만한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장관에 따르면 현재 규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올해 안에 어선의 10%에서 15%가 바다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3,500만~4,000만 유로의 수익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포르투갈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선박 선원의 최소 60%는 포르투갈, EU 또는 유로존 국민 또는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 출신이어야 한다.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은 이 제한을 유지하되 어선원의 출신 국가를 확대한다. 포르투갈은 이들 국가와 특별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누노 시모네스 데 멜로 의원은 정부의 접근 방식을 비판하였다. 그는 대안으로 포르투갈인 고용에 더 많은 혜택 제공을 촉구하였다.

* 출처: Fishnews, 2025년 1월 30일자



러, 2억 8천만 달러 선박 보조금 계획 합의 '25~'27년 어선 신조 자국 조선소 대상

러시아 당국은 자국 어선단 향상 노력을 이어가기 위하여 새로운 선박 보조금 계획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4년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업계 로비 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유해 수산 보조금 협정에 조인한 결정 이후 나온 것이다.

그러나 전러시아어업협회(이하, VARPE)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5~2027년 동안 자국 조선소에 어선 신조 보조금으로 285억 루블(약 2억 7,800만 달러)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해당 보조금은 신조선 20척을 건조하는 러시아 조선소를 지원하는 215억 루블과 투자쿼터제도 계약에 따라 계 신조 어선을 건조하는 수산업체에 지원되는 약 70억 루블로 구성되어 있다고 VARPE는 러시아 경제개발부를 인용하여 발표하였다.

VARPE는 이전에 투자 쿼터 제도에 따라 새로운 어선을 건조하는 러시아 수산 기업들이 최대 100%에 상당하는 비용 초과에 직면했으며,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 기업들은 함대 갱신 계획

에 근거하여 합의된 계약에 따라 선박을 신조 중이다.

러시아가 자국 어선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지난해 정부가 WTO 수산 보조금 협정을 수용하여 보조금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이후 나왔다.

2024년 3월 18일, 러시아의 WTO 상임대표 니콜라이 플라토노프는 보조금 협정에 대한 수락 서한을 응고지 오크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에게 전달하였다.

2022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장관급 회의에서 채택된 이 협정은 남획 어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불법, 미신고 및 규제되지 않은(IUU) 어업에 대한 지원을 금지한다.

해당 협정은 전 세계 수산 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유해 수산 보조금'을 금지한다. 규제되지 않은 공해에서의 수산 보조금을 금지하여 과잉 어획 및 남획에 대한 보조금을 억제하는 계획이다.

러시아 수산 단체들은 수년 동안 WTO 협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표명해 왔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월 21일자



러, 생선을 식단에 포함하고자 노력

어획물 가치 약 34% 증가

러시아인의 식단에 생선을 포함하는 것은 1월 말 연방평의회 산하 농업 및 식량 정책과 자연 관리위원회에서 주제가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의 1인당 평균 수산물 소비량은 21~22kg 수준에서 안정화되었다.

지난해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로드맵은 2030년까지 러시아 국내 생선 소비 수준을 28kg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연방평의회 부의장인 이고르 주바레프는 러시아인, 특히 젊은 연령층의 영양 불균형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0년 후에는 현재 20~30세인 사람들이 영양 불균형에 따른 치료를 위해 의료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쓸 것이다."라고 카렐리야 상원 의원은 말하였다.

그는 생선에 대한 젊은이들의 무지에 대해 한탄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생선 식단은 계속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학생들을 포함한 생선 제품을 대중화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연해주 연방평의회 의원에 따르면, 국가 기관의 급식을 위해 러시아 국내산 제품의 지방 자치 단체 구매를 확대함으로써 러시아 국내 생선 소비를 크게 늘릴 수 있다고 하였다.

어선 선주 협회장은 학교, 유치원, 의료 기관, 요양소를 포함한 국가 기관 직원의 급식 제공에 찬성하며, 특히, 생선 필렛과 연육 등 제품을 급식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회의 참가자는 생선 소비량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투바 공화국이나 알타이 공화국에서는 이 수치가 연간 10kg에 미치지 못하지만, 마가단 지역이나 네네츠 지역에서는 40kg을 초과한다. 연방수산청 부청장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가 항상 지역의 지리적 위치나 어업 유무와 연관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무르만스크는 아르한겔스크의 어획량을 훨씬 능가하지만, 생선 소비량은 반대이며, 국가 어획량의 증가와 소비량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경제적 요인도 생선 소비에 큰 영향을 준다. 소득이 가장 낮은 가정에서는 1인당 연간 생선 섭취량이 15kg 미만이지만, 소득이 높은 가정에서는 이 수치가 30kg 이상이다.

회의 참가자는 또한 도매 회사, 소매 체인, 운송 사업자와 같은 수산시장의 여러 부문의 대표를 대화에 초대할 필요성을 파악하고 차기 회의를 3월 내에 개최기로 하였다.

* 출처: Fishery.ru, 2025년 2월 4일자



사업 통합으로 발전하는 러 생선 가공 업계

기업 수 감소에도 종사자 유지 및 수익 금액 증가

어류 가공 통합은 시작 단계이지만,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것이며, 여기에는 인수합병과 유기적 성장이 포함된다고 러시아어업연합의 알렉산더 파닌 회장은 피쉬뉴스 인터뷰에서 말하였다.

수산업의 통합 과정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이 중 어류 가공 부문은 아직 시작 단계라고 협회장은 말하였다.

“우리는 시장에 주요 플레이어가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인수·합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협회장은 “비즈니스 통합은 M&A 거

래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도 발생한다. 연방통계청(Rosstat)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어류 가공 기업 수는 1/3로 감소했지만, 수익은 3.5배, 세금 납부는 2배 증가하였으며 직원 수는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즉, 주요 매개 변수는 이러한 기업 수의 감소 원인이 기업이 파산하고 시장을 떠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진지한 기업들의 유기적 통합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라고 협회장은 말하였다.

* 출처: Fishnews, 2025년 1월 14일자

러시아 새우 수요, 눈에 띄게 증가

어획량 15% 증가에도 수출량 감소 및 수입량 증가

러시아 어류 연합 분석 센터는 러시아에서 새우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여 새우의 수출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하였다.

러시아와 중국 간의 어류 및 수산물 무역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24년 러시아에서 중국으로의 냉동 새우 수출은 2023년에 비해 22% 감소하여 4천 톤에 그친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새우 어획량이 2만 7천 톤으로 15% 가까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이다.

분석가들은 러시아 내수 소비자들 사이에서 새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중국에서 러시아로의 조리 냉동 새우 수입은 193% 증가하여 1,200톤에 달하였다. 공급 증가는 또한 국내 시장에서 새우에 대한 높은 수요에 기인한다.

* 출처: Fishery.ru, 2025년 1월 31일자



日, 어민이 과학 자료수집을 도와 해양 환경 변화의 위기 타개를 위해 노력

일본 과학자와 어민이 일본 주변 해역의 해양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는 해양 환경 변화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젝트에는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NFFC), 도쿄대, 일본재단(Nippon Foundation)이 참여한다. 어민은 수온과 염도에 대한 데이터는 물론 특정 어종 등 어획량에 대한 정보를 대학에 전송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하였다.

이미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47개 현 중 12개 현에서 시험 모드로 자료수집이 시작되었다.

NFFC의 협회장은 업계의 미래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협회장은 또한 해양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로 인해 어민이 느끼는 위기감과 이해 부족으로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 출처: Fishery.ru, 2025년 1월 31일자



러 남극 크릴 어획량 약 8만 톤

러 크릴 어업, 약 30년 만에 재개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수산청은 2024년 남극 크릴 어획량이 8만 3,000톤이라고 발표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2021년 남극 어업에 관한 계획을 승인하고 남극 크릴 어업의 부활을 목표로 하

였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CCAMLR) 관할 수역에서의 조업을 약 30년 만에 재개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1월 28일자



베트남, 글로벌 생선 수출 입지 강화 수출 역량 개발에 본보기

베트남은 최근 몇 년 동안 수산물 수출 부문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이며 국제 무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 수산물 수출 및 생산자 협회(VASEP)에 따르면 2024년 베트남의 수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하여 1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는 10~15%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글로벌 시장에서 베트남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베트남 수산업 수출의 성공에 이바지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베트남이 16개의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VFTA) 및 영국(UKVFTA)과의 협정 등을 통하여 베트남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무관세로 국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베트남 생산업체에게 상당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여 보다 매력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베트남은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생선뿐만 아니라 필렛, 연육, 민스와 같은 가공품도 포함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수출 수입을 늘릴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추가 일자리도 창출한다.

가장 인기 있는 어종 중 하나인 팡가시우스의 베트

남 수출은 2024년에 9% 증가하였다. 특히 러시아산 수산물의 비우호적인 시장 접근 제한을 배경으로 팡가시우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산 흰살 생선 공급이 줄어들면서 베트남산 팡가시우스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국제 시장에서 비어 있는 틈새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베트남 생산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

러시아는 고차 가공 분야에서 수산물 부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러시아는 냉동 생선 공급에서 선주를 유지하고 있지만 비우호적 국가의 관세 등 제한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저하하였다.

동시에 베트남은 자유 무역 협정이 제공하는 유연성과 기회를 활용하여 국제 무대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베트남은 경쟁 우위를 활용하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적응하면서 전 세계 수산물 수출에서 꾸준히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생산량과 수출이 증가하고 고부가가치에 초점을 맞추면서 베트남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분야에서 더 큰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베트남 생산자들의 성공 전략은 수산물 수출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에 모범이 될 수 있다.

* 출처: Fishretail, 2025년 1월 13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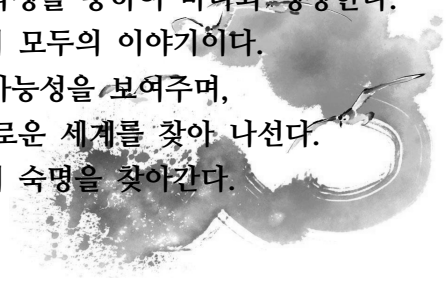
바다

최 동 권

바다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
 그 무한한 푸른 물결은 우리의 삶과 숙명을 담고 있다.
 뱃사람은 그 바다 위에서 살아가며, 그들의 숙명을 찾아 나선다.
 바다는 언제나 변하고,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고,
 물결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 변화는 우리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다.
 우리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배운다.

바다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안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세계가 숨어 있다.
 뱃사람은 이러한 가능성을 찾아 나선다.
 그들은 배를 타고 떠돌며 새로운 세계를 찾아간다.
 이 과정에서 도전하고 성장하며 배워나간다.
 그렇게 뱃사람은 자신의 숙명을 찾아 나선다.
 그들은 바다 위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더 나은 삶을 꿈꾼다.

바다와 뱃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배워가며,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
 바다 위에서 자신의 숙명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바다와 성장한다.
 바다와 뱃사람의 숙명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새로운 세계를 찾아 나선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숙명을 찾아간다.





1월 오징어 국내 동향

전월 대비 생산량 20% 감소, 수입량 18% 감소

□ 생산동향(1월 오징어 생산량, 전월 대비 2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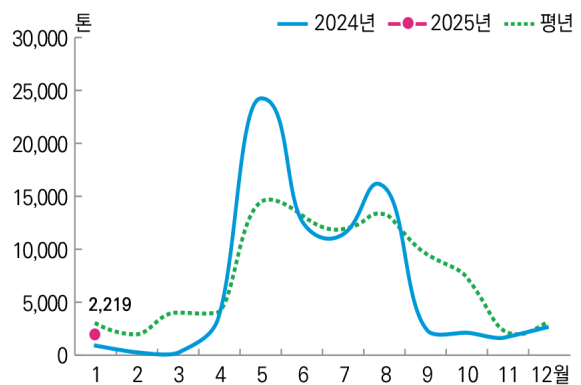
2025년 1월 오징어 생산량은 전월 대비 20.4% 감소한 2,219톤으로, 작년 동월 대비 187.4% 많았으나 평년 대비 32.2% 적었다.

연근해산 생산량은 전월 대비 37.3% 증가한 1,083톤으로 작년보다는 40.3% 많았으나 평년 대비 63.7% 적었다.

동해 중남부 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어 전월 대비 어획이 개선되었으나 평년 대비 저조하였다.

수협별 위판량은 통영수협이 139톤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죽변수협 127톤, 삼척수협 109톤, 포항수협 92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1월 원양산 오징어 반입량은 1,136톤으로 전월 대비 43.1% 감소하였으나, 평년 대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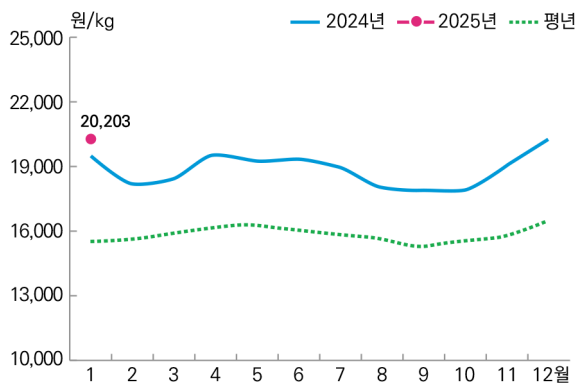


□ 가격동향(1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포함세)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kg당 6,811원으로 전월 대비 30.2% 하락하였으나,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는 각각 3.9%, 2.3% 높았다.

오징어(냉동) 도매가격은 kg당 1만 4,265원으로 전월과 비슷하였으며, 작년 및 평년 동월 대비 각각 6.1%, 27.0% 높았다.

오징어(냉동) 소비자가격도 전월과 비슷한 kg당 2만 203원으로, 작년 및 평년 동월 대비 각각 3.6%, 30.7% 높았다.





□ 수출입동향(1월 오징어 수출입량 전월 대비 감소)

1월 오징어 수출량은 1,956톤으로 전월 대비 42.7% 감소하였으나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 많았다.

국가별로는 스페인으로의 수출량이 678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국 482톤, 미국 462톤, 이탈리아 144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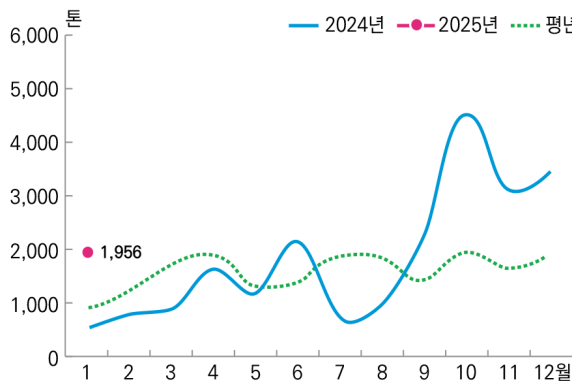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품이 1,520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기타 264톤, 조미오징어 126톤 등으로 나타났다.

1월 오징어 수입량은 1만 2,174톤으로 전월 대비 18.1% 감소하였으며, 작년 및 평년 동월 대비 각각 47.6%, 45.0%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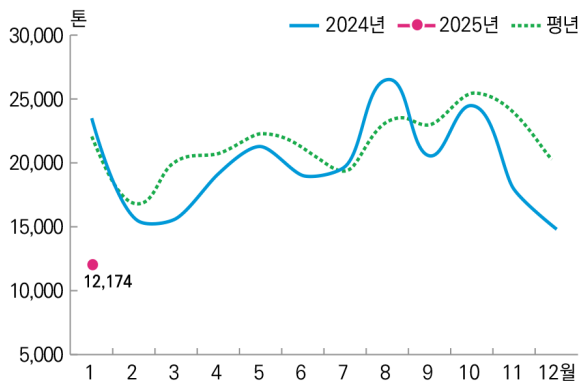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9,208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칠레산(859톤), 베트남산(402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오징어가 5,679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기타(3,742톤), 조미오징어(2,364톤), 건조오징어(385톤) 등의 순이었다.

〈 오징어 수출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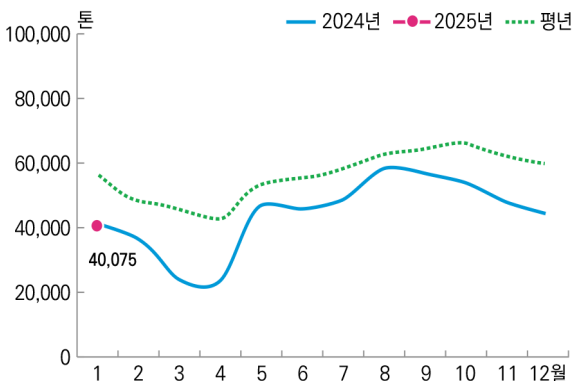
〈 오징어 수입량 추이 〉



□ 재고동향(1월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10% 감소)

1월 말 오징어 재고량은 전월 대비 9.9% 감소한 4만 75톤으로, 작년 및 평년 동월 대비 각각 2.5%, 28.2% 적었다.

연근해산은 9,902톤으로 전월 대비 11.6% 감소하였으며, 원양산은 3만 173톤으로 9.3% 감소하였다.



< * 출처: KMI 수산물측 2월호 >



1월 명태 국내 동향

전월 대비 수입량 14% 증가, 소비자가격 5%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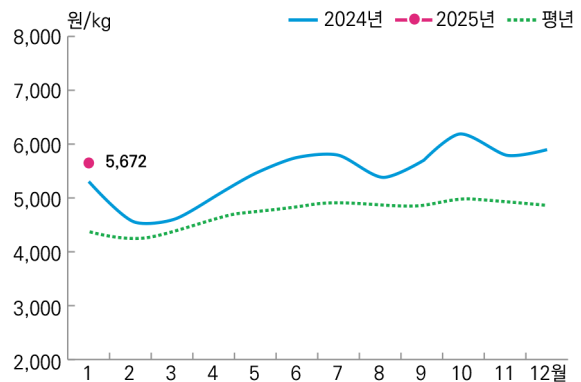
□ 생산동향(휴어기)

2025년 1월은 원양트롤어업 휴어기로 원양명태 생산이 없었으며, 2024년 어기 어획물 반입은 2024년 12월 27일 종료되었다.

□ 가격동향(1월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5% 하락)

2025년 1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kg당 2,400원으로 전월보다 4.8% 상승했으나 작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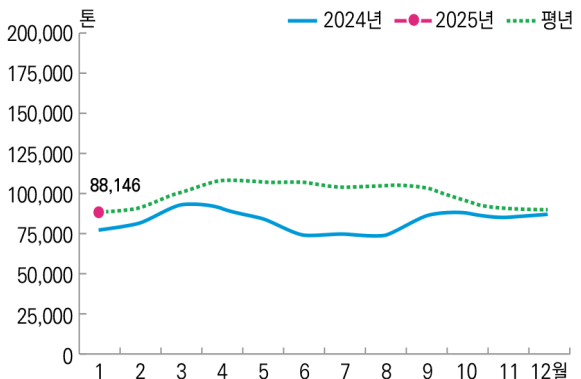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정부 비축수산물 방출(1.2~1.32) 및 대형소매점 할인행사로 전월 대비 4.5% 하락한 kg당 5,672원이었다.



□ 재고동향(1월 재고량, 전월과 비슷)

1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8만 8,146톤으로 반입은 종료되었으나 수입이 늘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작년에 비해서는 15.4% 많았으나, 평년과는 비슷하였다.





□ 수출입동향(1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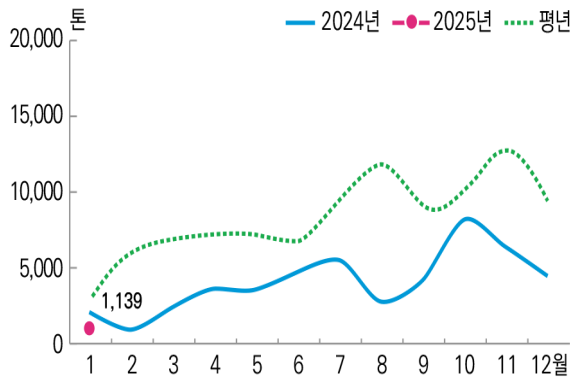
1월 명태 수출량은 1,139톤으로 전월 대비 73.6% 감소하였으며, 작년 동월 및 평년에 비해서는 각각 47.4%, 64.8% 적었다.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 보면, 냉동명태는 베트남으로 229톤이 거래되었으며, 냉동연육은 태국으로 192톤이 수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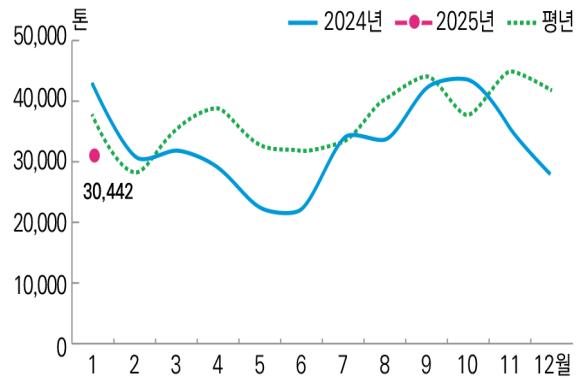
명태 수입량은 전월 대비 13.7% 증가한 3만 442톤이었다. 작년 및 평년에 비해서는 각각 25.1%, 15.2% 적은 양이었다.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는 러시아산 냉동명태가 1만 2,144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러시아산 냉동필렛(8,208톤), 미국산 냉동연육(3,568톤)순이었다.

〈 명태 수출량 추이 〉



〈 명태 수입량 추이 〉



< * 출처: KMI 수산물측 2월호 >



2024년 수산식품 수출 실적 30억 불 돌파

유럽 지역 수출액 전년 대비 16.4% 증가 등 수출국 다변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수산식품 수출 총액이 30.3억 달러(전년 대비 +1.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의 수출액은 수출 1위 품목인 김이 997백만 달러(1.3조 원)를 기록하여 2년 연속 1조 원을 달성하였다. 뒤를 이어 수출 2위 품목인 참치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589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수산물 수출액(백만 달러): (2023년) 2,997, (2024년) 3,035(+1.2%)

김 수출액(백만 달러): (2023년) 792, (2024년) 997(+25.8%)

참치 수출액(백만 달러): (2023년) 563, (2024년) 589(+4.7%)

2024년 수산식품 주요 수출 국가는 일본(659백만 달러), 미국(479백만 달러) 등으로, 특히 유럽 지역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4% 증가한 227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확장 가능성을 보였다.

* 일본 수출액(백만 달러): (2023년) 637, (2024년) 659(+3.4%)

미국 수출액(백만 달러): (2023년) 428, (2024년) 479(+11.7%)

유럽 수출액(백만 달러): (2023년) 195, (2024년) 227(+16.4%)

해양수산부는 2024년 우수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원료 구매, 제품 저장, 가공 등 운영

에 필요한 자금(융자 형태)을 지원했다(우수수산물지원/2024년, 1,324억 원). 또한, 기업 단계별로 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연 최대 2.2억 원을 지원했다(수출바우처 지원사업/2024년, 77억 원).

올해에는 보호무역주의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플랫폼」을 올해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프랑스에 새롭게 문을 연 무역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 지원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스페인·프랑스 등 유럽지역 박람회 참여를 지난해 3회에서 올해 6회로,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작년 한 해의 수출 실적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제분쟁 지속, 기후 변화로 인한 수산물 수급 변동성 등 불확실한 통상 여건에도 대한민국 수산식품 수출을 위해 업계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신 덕분”이라며, “올해에는 김, 참치 외에도 굴, 전복 등 품목을 수출 상품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유럽 등지로의 시장 저변 확대를 지원하여 K-Seafood 수출 산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2024년 우리나라 원양어선 어획량 17% 증가

기후변화에도 지속적인 식량안보에 기여

2024년 12월까지 원양어업 생산량은 47만 9,398톤으로 지난해(41만 367톤)보다 17%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횡감용 참치는 4만 6,619톤을 어획하여 지난해 3만 8,467톤 대비 21% 증가하였으며, 통조림용 참치는 28만 8,742톤을 어획하여 지난해 25만 4,280톤 대비 14% 증가하였다.

원양저연승(대구, 이빨고기) 어획량은 6,125톤을 어획하여 지난해 6,197톤 대비 1% 감소하였다.

원양트롤 어획량은 9만 2,104톤을 어획하여 지난

해 9만 960톤 대비 1% 증가하였다. 원양트롤 어획량 중 명태트롤의 경우 2만 9,113톤을 어획하여 지난해 2만 8,535톤 대비 2% 증가하였으며, 오징어 및 크릴트롤의 경우 6만 2,992톤을 어획하여 지난해 6만 2,425톤 대비 1% 증가하였다.

원양오징어채낚기 어획량은 3만 9,942톤을 어획하여 지난해 1만 7,112톤 대비 133% 증가하였다.

원양꽂치봉수망 어획량은 5,866톤을 어획하여 지난해 3,179톤 대비 85% 증가하였다.

정부, 수산업 전문가 훈련연수 추진

뉴질랜드 해양연구소 간 수산자원 평가 공동연구 진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3일(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수산업 전문가 훈련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서는 국립수산물과학원 소속 수산 전문가가 뉴질랜드 해양연구소(NIWA)를 방문해 수산자원 평가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연수기간 / 장소 : ‘25. 2. 3. ~ 2. 7. (1주간) / 뉴질랜드 해양연구소(NIWA)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2015년 12월에 체결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수산기술 및 인적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특히 수산업 전문가 훈련연수는 양국 수산 분야 전문가 간 연구와 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 대표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수로 양 기관은 ▲ 수산자원 평가 데이터의 품질 향상 방안 ▲ 자원평가 모델 구축 사례 ▲ 뉴질랜드 자원평가 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과 뉴질랜드 간 수산 협력 체계가 한층 더 공고해지고, 수산자원 관리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 수산 경제 전망

수산물 생산 감소에도 어가소득 증가 예상

수산업은 어족자원, 기상 상황 등 자연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소비자의 심리적 요인 등에 매우 민감하게 변동함에 예측이 매우 어려운 산업이다. 그럼에도 계량화된 수치 자료를 전망치로 알아보는 것은 오류가 있더라도 방향성과 이에 대비해 나가는 것에 의의가 있다.

올해 국제유가는 72.8달러로 2024년 대비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된다. 주요 기관별 국내경제는 민간 소비 등 내수 회복에 힘입어 다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민간소비 회복과 함께 금융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설비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2.1~2.2%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어업생산은 2021년 383만 톤까지 증가한 이후 2024년은 367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는 361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미약한 감소 추세에 있다.

수산물 소비량은 지난 10년간 증가세로 연평균 증감률은 0.9%지만 2020년 이후 다소 감소세를 보인

다. 수산물 소비량은 491만 톤으로 전망되며, 올해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63.2kg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며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연근해 생산량 감소, 수산업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과 수산물 안전성 이슈 발생 시 수산식품 소비는 정체되거나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수산물 자급률은 변동 폭이 크지 않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수출액은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이며 연평균 증감률은 4.2%를 기록하였다. 최근 K-푸드에 대한 관심으로 수산물 수출액은 3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어가소득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연평균 증감률은 3.3%를 유지하였다. 2014년 4,102만 원에서 2023년 5,478만 원으로 33.6% 증가하였다. 올해 어가소득은 5,794만 원으로 지난해 5,636만 원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산물 생산 감소세에 따른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어로어업소득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수산양식(1월호), 2025년 1월 2일자



2025 수산업 전망과 과제

어업생산 증가, 어가소득 상승 전망

KMI 수산업관측센터장에 따르면, 지난해 어업총생산량은 전년 수준인 363만 톤으로 추정된다. 연근해 어업은 대부분 생산량이 줄어 전년 95만 6천 톤보다 11.7% 감소한 84만 4,000톤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오징어는 44.3% 감소하였다.

올해 어업총생산량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373만 톤으로 전망되며, 이중 원양어업은 5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산물 수출액은 31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 증가하고 수입액은 59억 6천만 달러로 전년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인당 순식용 공급량은 60kg으로, 어류 18.2kg, 조개류 16.6kg, 해조류 25.2kg으로 예상된다. 자급률은 76.5%로 어류 59.1%, 조개류 50.5%, 해조류 127.3%로 보인다.

올해 수산물 자급률은 78%로 전망된다. 국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국내 소비는 감소하여 자급률은 1.5%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어업산출액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9조 8천억 원으로 해조류 및 연체동물 생산 금액이 증가하였다. 또한 수산물 생산자가격은 2,6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 상승하였다.

올해 어업산출액은 국내 공급감소에 따른 가격 상

승영향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한 10조 1,555억 원으로 전망되며, 어업 부가가치는 어업산출액이 늘면서 전년 대비 3.9% 증가한 3조 2,980억 원으로 예상된다.

생산 부문은 자원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 및 한계 경영에 대비한 대응 수립 및 감척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수출 부문은 기존품목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과 제품 개발, 품질 및 가격관리를 위해 업계 조직화 등을 추진하고 품목 다각화를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수급 부문은 수산물 소비 감소,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물 홍보 및 소비 촉진 사업을 확대하고 물가 상승 우려 품목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

생산 기반부문은 신규 인력 유입 확대를 통하여 유통시설 현대화, 수산물 품질 강화 등 부가가치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기관 간 MOU 체결, 해외 인력 수급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생산 인력 수급 안정화가 필요하다.

* 출처: 어민신문, 2025년 1월 20일자



아프리카의 수산 협력 잠재력 높아 수산분야 전문화된 개발협력 전략과 기반 형성 필요

아프리카는 수산물 생산량과 어업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유일한 지역으로 그만큼 정책적·사회적 이슈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아프리카는 전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 지역인 아시아의 연평균 성장률인 2.36%를 웃도는 2.8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아프리카의 1인당 수산물 명목 소비량은 세계 평균인 20.6kg보다 훨씬 낮은 9.4kg에 불과하며 이는 2015년의 9.9kg보다 감소한 수치로 인구 증가, 어업 거버넌스 부족, 불법 어업, 기후변화 취약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결과로 파악된다.

수산부문은 대아프리카 협력과 지속가능한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지만, 제한적인 국내 수산 ODA 예산 등 협력 수요의 사업화 한계로 협력 확장 기반이 부족하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수산부문 ODA 연평균 증가율은 6%나, 전체 아프리카 ODA 규모에서 수산분야의 ODA 비중은 5년 평균 0.31%를 차지하여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에 범정부 차원의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중요성

이 강조되는 가운데 수산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방안 발굴 및 검토와 수산협력·개발을 위한 전문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노르웨이는 아프리카에 특화된 식량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다각화를 통하여 사업 규모와 효과를 확대하고 있다.

아프리카 간의 국제수산협력 사업안으로 연구진은 한국어선을 활용한 아프리카 어업 개발 지원사업, 제빙시설 및 냉동창고 지원사업, 해조류 양식강치사슬 구축 사업, 수산물 가공단지 구축 사업 등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실현을 통하여 정부와 민간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

이외에 연구진은 부처별 분산된 국제수산협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독자적 법률 기반 확보와 부처별 국제협력 담당자의 업무를 세분화하고 전담 부서 신설 및 인력 확충 등 국제수산협력 조직체계를 개선하고 현지 경험과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중 이해관계자 동반관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출처: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체계 개선

연구, 2024년 11월 30일자



우리나라 원양어업 어종 자원 현황

전년 대비 증가 또는 유지

2023년 우리나라는 각종 국제수산물관리기구의 과학 위원회에 참가하여 주요 14개 어종의 자원평가를 공동 수행하였다.

주요 관리 대상종인 눈다랑어는 태평양에서는 건강한 상태, 인도양에서는 남획 및 과도 어획, 대서양에서는 남획되었으나 과도 어획은 되지 않았다. 황다랑어는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건강한 상태로 평가되었고, 인도양은 남획 및 과도 어획되고 있다. 가다랑어는 모든 해양에서 건강한 상태이며, 태평양참다랑어와 남방참다랑어는 자원 회복 추세이고, 대서양참다랑어는 안정적인 상태로 평가되었다.

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의 주요 관리종인 꽁치는 남

획으로 평가되었고, 자원량은 소폭 증가하였지만, 어획 사망률이 높고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자원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전갱이는 건강한 상태로 자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원회복관리 전략에 따라 TAC는 증가할 전망이다.

2023년 자원평가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RFMO별 쿼터는 17개 어종에 대해 총 6만 3,751톤이 되어, 전년 대비 104% 수준으로 모든 쿼터 대상종이 증가 또는 유지되었다. 한편 남극이빨고기는 우크라이나와 협업한 공동조사계획 승인으로 101톤의 조사쿼터를 추가로 확보하였다.

* 출처: 수산연감, 2024년 12월 31일자

이빨고기 생산 및 교역 현황

생산 및 교역량 감소 추세

전 세계 이빨고기 생산량은 2022년 기준 2만 4,592톤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1% 감소세이다. 이는 주요 연안국의 어획량 감소가 이유로, 이 중 우루과이는 연평균 33.2%, 뉴질랜드는 연평균 46.5% 감소하였다. 프랑스가 전 세계 이빨고기의 22.4%에 달하는 5,625톤을 생산하였고,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호주, 한국 순이다. 이들 5개국은 5년 평균 전체의 74.5%를 생산하였다.

우리나라의 2022년 생산량은 3,541톤으로 연평균 1.2% 증가하고 있다. 생산량의 71.1%는 FAO 41해구에서, 28.9%는 CCAMLR 해역에서 어획하며, 생산량의 82.5%는 수출된다. 수출국은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량의 79.5%에 달하며

금액 기준 80.8%가 미국으로 수출된다.

이빨고기의 주요 수출국은 한국, 칠레,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호주 순이다. 한국은 전 세계 이빨고기 수출량의 21.0%, 금액 기준 25.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수출 상위 5개국의 수출량은 전체의 66.2%, 금액 기준 75.0%를 차지하였다.

이빨고기 주요 수입국은 미국, 중국, 싱가포르, 스페인, 모리셔스 순이다. 미국은 전체 수입 물량의 49.6%에 달하는 1만 1,727톤을 수입하였으며, 금액 기준으로 58.5%에 달한다.

* 출처: 원양산업 탄소배출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2024년 12월 31일자



참치 무역 현황

원물 중심 수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전략 필요

최근 3년간 전 세계 참치 무역 네트워크에서 미국과 일본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뒤를 태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뒤따랐다.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품목은 원물 중심으로, 자국의 높은 인건비로 인하여 가공 산업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태국은 타국으로부터 원물을 수입하여 가공 후 재수출하는 구조로 자국 내 가공업이 발달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참치 어획량 중 약 43%인 11만 톤이 국내로 유통되고, 나머지 18만 톤은 해외로 수출되는 형태이다. 참치선망선의 조업은 남태평양 도서국(PNA)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며, 2012년 이전까지 연간 입어료를 정액으로 지급하였지만, VDS(Vessel Day Scheme)의 도입으로 조업 가능

일수로 변경되어, 연간 적당 200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로 상승하였다. 중국은 현지 투자와 참치 가공 시설 건립을 통한 투자로, 대만은 합작 사업을 통하여 상대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한국 선단은 현지 투자가 없이 단순 입어만 지속하여 PNA 국가와의 유대 관계 구축에 한계를 보인다.

이에 반해 태국 가공업체는 조업선의 생산량과는 별개로 참치 재고 상황에 따라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있어, 원물 수출을 하는 선사로선 냉동운반선 물량을 공급이 어렵고, 운항 지연 시 체선료 등 경비가 발생하여 태국의 대형 가공업체의 가격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출처: 수산물 공급망 관리 개선 방안 연구,
2024년 12월 31일자

한·중어업협정

어업협정 체결을 통한 수산 자원 보호 및 조업 질서 확립

1980년대 후반 들어 중국 어선 문제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에 1992년 한·중 간 외교수립을 계기로, 1998년 11월까지 19차례의 실무회담을 거쳐 1998년 11월 한·중협정에 가서명, 양측간의 의견수립 후 2001년에 어업협정이 공식 발효하였다.

한·중 어업협정 발효에 따라 우리 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1만 2천여 척에서 2023년에는 1,250척만 허용하는 등 지속해서 조업 어선을 축소하여 우리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2017년에는 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8년부터 시범 운영함에 따라 양국이 불법조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불법조업이 지속해서 감소하도록 하였다.

2023년 11월에 개최한 제23차 한·중 어업위원회에서는 양국 수역에 입어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조업 질서 유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출처: 수산연감, 2024년 12월 31일자



한·소 어업협정

우리나라 유일한 명태 조업어장 확보 노력

1970년대부터 미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해 오던 우리나라 북양 트롤명태어선은 1989년 미국의 상업적 어업활동 중단 방침에 따라 새로운 어장확보가 절실하였다. 이에 1991년 한·소간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소련 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초창기 조업 형태는 정부 간 협력사업과 민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어, 60여만 톤 쿼터, 최대 34척까지 조업하였다. 2001년에는 러시아는 민간 쿼터 배정을 경쟁입찰제도로 전환하여 민간쿼터로 16만 5,000톤의 쿼터를 확보하였으나 2002년에 이 제도를 없애고 정부 간 쿼터를 2만 5,000톤만 확보함에 따라 합작 형태로 변경하여 조업하였다.

소련의 법적 승계를 받은 러시아는 1997년부터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의 입항정보 등에 대한 자료제공을 지속해서 요청하였고, 2009년 양국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간의 불법 교역이 완전히 차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쿼

터량도 4만 톤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 우리나라는 향후 10년간 매년 5만 톤의 쿼터를 제공할 경우 10년간 러시아 극동지역에 냉동창고·가공공장 건설 등의 어업협력 사업을 추진의향을 밝혔다. 이와 관련, 2012년 명태업계와 러시아 Ecarma社は 사할린에 1천톤 규모의 냉동창고를 준공하였으며, 2016년 극동지역 투자 타당성 조사결과를 러 측에 제공, 2017년에는 러 극동투자유치청과 민간 기업 간 투자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 간의 협력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양국 사업자 간 사업 진행에 대한 이견 등으로 사업은 무산되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명태 조업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협정 체결, 협정 이행, 투자 등이 시도 되었으나, 사업이 심화하였을 때 양국과 사업 진행자 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 일치가 불가능한 점 등은 양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수산연감(정정 및 보완), 2024년 12월 31일자



한·일어업협정

조업규제확대 및 조업 척수 축소 등으로 미타결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 후 한·일 양국은 1996년에 자국의 EEZ를 선포하였으나, 한·일 양국의 동·남해 및 제주 수역의 양국 간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아 EEZ 경계 획정이 곤란하였다. 이에 1998년 신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고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2016년 어기 협상을 위하여 '16.5월부터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현재까지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호 입어하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우리 측 어획량이 일본보다 월등히 많아 발생하는 조업 불균형(3배~10배 차이)으로 분석된다.

우리 측은 새로운 조업 규제의 추가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여 일본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양국은 2019년 말까지 우리나라는 연승어선 40척을 일본측은 선망 30척 및 오징어채낚기 10척을 감척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도 일본은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규모를 1/3 수준으로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하여 현재까지도 입어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입어 협상 지연으로 일본에 입어하지 못하는 해당 업종을 대상으로 대체어장 자원조사 및 감척 사업 등 국내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실무적·외교적 노력 등을 통하여 어업 협상이 재개하여 상호 입어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수산연감, 2024년 12월 31일자

미국의 명태산업 현황

어획량 유지, 수출량 증가, 제품가격 하락으로 수출액 감소

미국의 2024년 명태 조업은 할당량의 95.9%인 139만 667톤을 소진하였다(0.1% 증가). 2024년 10월까지 수출량은 3.7% 증가하였지만, 금액은 4.7% 감소하였다. 연육과 필렛 제품이 각 10.8%, 12.5%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

주요 수출국은 네덜란드로 7만 2,879톤을 수출하였고, 뒤이어 한국과 일본에 6만 9,988톤, 6만 1,873톤을 수출하였다. 네덜란드 수출량 중 필렛이 6만 3,206톤을 차지하였다. 한국, 일본행 제품은 연육이 각각 5만 7,494톤, 4만 8,496톤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의 명태 수출 제품 중 연육이 가장 많이 수출되었다. 10개월간 평균 수출 가격은 전년도 kg

당 2.69달러에서 2.40달러로 10.8% 하락하였으며, 필렛 제품의 수출 가격도 kg당 3.85달러에서 3.37달러로 12.5% 하락하였다.

한국으로 수출한 명태 물량은 명란만 36% 증가하고 나머지는 모두 감소하였다, 특히 라운드와 필렛 제품은 각각 82.4%, 60.8%나 감소하였다.

한국으로 수출된 연육의 가격은 kg당 2.37달러로 2023년 대비 17.9% 하락하였으며, H&G는 31.9%나 하락한 1.41달러에 그쳤다.

반면 한국으로 수출한 명란의 수출 가격은 kg당 5.89달러로 전년도보다 3.8% 올랐으며, 필렛의 수출 가격도 kg당 3.73달러로 4.4% 상승하였다.

* 출처: 오션21, 2024년 12월 31일자



원양어업 및 어장 현황

해양자원 이용에 대한 관심 확대로 관리 및 규제 강화

원양어업은 1957년 참치 시험조업선이 인도양에 진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초반까지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우리 원양어장이 급격히 축소하였는데, 이는 2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과 1977년부터 미국·소련 등 세계 연안국들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한 것이 원인이었다. 최근에도 원양어업의 조업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원양어업은 어선의 노후화, 유가 및 인건비 상승, 어선원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자원국의 조업규제 강화와 함께 국제수산기구, 미국, EU 등의 IUU 어업 등에 대한 국제규범 강화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원양어업의 어장 축소 과정을 살펴보면, 1988년 미국수역에서 북양트롤어선이 철수하고 1993년 북태평양에서 조업하던 오징어 유자망 조업이 중지되었다. 1999년 11월에는 일본 북해도 수역에서 조업하던 트롤어선이 전면 철수하였다. 또한 해양의 특수성에 기인한 이슈·문제의 공동대응과 해양자원을 이용하려는 각국의 수요가 맞물려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되었다. 이어 1995년 8월 ‘유엔 공해어족 보존협정’이 채택되면서 해양수산 관련 의제가 국제사회의 주요현안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해역 단위별로 공해자원에 대한 규제가 지속해서 강해지고, 국제수산기구가 설립되는 등 공해 수산·자원관리가 강화하고 있어 원양어업의 여건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참고로, 2023년 말 현재 우리나라

라는 22개의 국제수산기구에 가입해 있다.

원양어업은 1957년 이후 지속 성장하여 1995년에는 원양업체는 185개 사에 이르렀다. 이후 원양어장의 급격한 축소 등 조업환경 악화로 2023년에는 1990년의 1/4 수준에도 못 미치는 38개 사로 감소하였다. 이중 어선을 1~2척만 보유한 영세업체가 20개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채낀기·봉수망·트롤 등 기타 업종이다. 11척 이상을 보유한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는 주로 참치연승·참치선망 업종이다.

원양어선 척수도 1990년의 810척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201척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중 선령 21년 이상의 노후선박이 173척으로 전체의 86.1%를 차지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원양업체 및 어선 척수 감소는 외부적으로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의 조업규제가 강화하였고, 내부적으로는 원양어선의 노후화, 유가 및 인건비 상승, 어선원 구인난 등으로 인하여 원양산업의 경영 여건 악화로 분석된다.

1992년 원양 생산량은 약 1백만 톤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명태의 100%, 꽁치 90%, 오징어 40%를 원양에서 생산 및 공급된다는 점을 미루어 원양어업의 중요성은 지속되고 있다.

* 출처: 2023 수산업·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4년 12월 31일자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투자 확대

세계 인구증가와 소득 수준 향상으로 수산물 소비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2032년 세계수산물 생산량은 2억 7,400만 톤으로 지난해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 수산자원의 감소와 조업 경쟁의 심화, 연안국과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 강화 등으로 원양산업의 대외 여건은 녹록지 않으며 경영 여건도 날로 악화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제13차 전국원양어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자원 보유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ODA 투자 등을 통하여 조업어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일본은 '어업구조개혁 종합대책'에 따라 노후어선을 현대화하고, 어선원 확보를 위한 선원 주거환경 개선 등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수산파트너십, 어업협정, ODA 투자확대 등을 통하여 국제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9년 정부출자와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1,700억 원을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선가 상승으로 업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선종과 관계없이 선박 가액의 50%를 지원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중고선박 대체 시에도 펀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정부는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원양업체의 경영 안정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74년부터 원양어업의 출어경비 일부를 영여자금에서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부터는 연근해어업과 달리 원양어업에서만 특별히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융자금인 '해외자원생산지원자금'을 운영하여 왔으며 2004년부터는 '원양어업경영자금'으로 명칭을 변경·신설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2023년에는 2,372억 원의 원양어업 경영자금을 확보하여 지원함으로써 경영개선은 물론 해외어장에서의 지속적인 조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케이프타운협정 혹은 안전을 위하여 선박을 수리·개조하는 경우에는 2022년부터 원양어업 경영자금의 금리를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여 지원하고 있다.

* 출처: 2023 수산업·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4년 12월 31일자



원양어업 안전관리 체계 강화

안전성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률을 최소화

2014년 북태평양 베링해에서 발행한 원양어선 '501오룡'의 침몰사고를 계기로 원양어선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원양어선 분야 해사안전감독관 인력 확보 등 원양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원양어선의 안전관련 지도·감독규정이 「어선법」, 「해사안전법」 등 여러 법령에 산재하여 원양어선 입·출항 시 실제 어선검사 등의 관리가 미흡하였고, 오랜 기간 해외수역에서 조업해야 하는 원양어업의 특성으로 효율적인 안전관리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원양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수역인 베링해, 남빙양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의 안전사고 발생 시 승선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수방수복 비치의 의무화하는 「어선실비기준」을 개정하였고, 원양선사의 안전관리 책임강화를 위한 자체 선박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원양어선 표준안전관리 매뉴얼」을 조업 현실에 맞게 제작·배포하였다.

또한, 원양어선 안전점검 강화를 위하여 원양어선 분야에 도입한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하여 '22년 국내항에서 출항하는 원양어선 190척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점검은 물론, 최저 승무 정원 승선 준수여부 등 총 157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고,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하여 모든 원양어선에 안전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선박에 비치하고 안전관리지침의 수립·이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였다.

앞으로 「선박직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승무정원 승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 항에서 출항하는 모든 원양어선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해외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사안전 감독관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원양어선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2023 수산업·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4년 12월 31일자



주요 수산물 수입량 감소

소비 및 생산 감소 원인

'24년 1~9월 명태 수입량은 14만 8천톤으로 대러시아 수입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2.1% 감소하였다. '24년 3분기 수입량은 5만 5천톤, 지난해보다 19.9% 증가하면서 상반기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러시아산 명태는 올해 국내 수요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단가 하락에도 수입이 감소했지만, 미국산 냉동 명태 연육은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수입이 증가하였다. 품목별로 전체 명태 수입량 중 냉동 원물이 70.5%로 가장 많았고, 냉동 연육 13.7%, 냉동 필렛 11.2%를 차지하였다. 국가별로는 국가별 수입액의 78.8%를 러시아가 15.0%를 미국이 차지하였다.

'24년 9월까지 대구 수입량은 1만 1,000톤으로 전년 대비 30.3% 감소하였다. 최근 대구 자원량 감소에 따라 상품성 높은 크기의 대구 공급이 감소하면서 대구 수입이 감소하였다. 국내 대구 생산도 감소하면서 대체재로 중국산 신선·냉장 대구 수입이 증가하였다. 품목별로 냉동 원물이 85.3%로 가장 많고, 냉동 필렛 7.5%, 신선·냉장품 6.8%를 차지하였다. 국가별로 러시아가 70.0%로 가장 많았고 미국 19.8%, 중국 5.5%를 차지하였다.

'24년 1~9월 참다랑어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45.9% 감소한 4,000톤이다. 전체 참다랑어 수입감소는 국내 소비 위축 등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체 참다랑어 수입량 중 참다랑어 냉동 필렛이 82.5%로 가장 많았고 냉동 대서양 참다랑어 11.4%, 냉동 남방참다랑어가 2.2%를 차지하였다. 국가별로 튀르키예가 22.3%로 가장 많았고 스페인 16.9%, 이탈리아 15.2% 순이었다.

'24년 1~9월 오징어 수입량은 10만 5천톤으로 지난해보다 10.5% 감소하였다. 페루, 칠레는 고수온으로 인하여 홉볼트오징어 어획 부진, 페루 어획 쿼터 축소 등으로 수입단가가 상승하고 수입량은 감소하였다. 일렉스 오징어의 생산 호조로 국내 원양산 생선과 아르헨티나, 대만, 스페인산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품목별로 전체 오징어 수입량 중 냉동품이 72.6%, 조미·자숙 제품이 26.2%를 차지하였다. 국가별로 중국이 46.6%로 가장 많았고 페루 19.6%, 칠레 6.1%, 아르헨티나 5.5% 순이었다.

* 출처: FTA 체결국 수산물 수입동향, 2024년 11월 30일자